

여명 참석.

- 5월4일 : 상계동 173번지에서 오성국씨 아들 오동근군(9)이 한국건설이 철거하다 방치한 슬라브벽에 깔려 숨짐.
- 5월6일 : 새벽 5시30분 영안실 사무실에 전경 500여명이 진입, 빈소를 지키던 주민 150여명 폭행하고 오동근군 시신을 강제로 화장.
- 5월10일 : 철거민500여명은 명동성당에서 오동근군 등 철거현장에서 숨겨간 빈민형제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거행.
- 6월1일 : 신당동 강제 철거.
- 6월10일 :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대회에 약 200여명 철거민 참석, 22개 철거지역 주민 400여명 명동성당에 모여 범국민대회 도시빈민 출정식.
- 7월17일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결성.
- 7월26일 :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시빈민생존권쟁취대회 개최.

1988년

- 3월10일 :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800여명이 폭력테러 규탄대회 개최.
- 4월21일 : 도시빈민생존권 쟁취대회를 명동성당에서 개최.
- 6월29일 : 올림픽반대 도시빈민생존권 대회 개최.
- 8월28일 :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올림픽기간 한성대와 돈암동에서 도시빈민 한가위 올림픽 개최.
- 11월16-17일 : 국회의사당과 시청 앞에서 연인원 3,500명이 참가하는 재개발 비리 폭로와 폭력철거 결사저지 결의대회 개최.

1989년

- 1월14일 : 신정동 황경호군 사망(12일 집달리의 계고장 부착과정에서 쇼크사).
- 1월16일 : 황경호군 도시빈민장(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400명, 신정동-남부지청).
- 1월19일 : 도시빈민생존권쟁취운동 탄압 폭로 규탄 및 분쇄 결의대회(도빈공투위 600명, 동소문 돈암동 넓은마당 - 돈암동 로타리).
- 2월2일 : 동소문 돈암동 공가철거 저지투쟁: 전경 13개 중대, 철거강패 600명(서철협 각 지역 600명, 바리케이트, 실력 저지).
- 2월18일 : 동소문 돈암동 정상을 세대위 부회장 피살.
- 2월20일 : 살인만행 규탄대회(동소문 돈암동 주민 200명, 고대해화병원 - 넓은마당).
- 2월22일 : 고 정상을 열사 도시빈민장(도빈공투위 1,500명, 넓은마당, 노계 - 돈암동 로타리). 살인만

- 행 규탄대회(400명, 돈암동 로타리 - 종로 - 광화문 - 명동성당).
- 4월2일 :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남부지역 결의대회(남부 100명, 신림2).
- 4월16일 : 영구임대주택쟁취와 강패철거저지를 위한 동부지역 결의대회(동부 100명, 평화촌 - 은호연립 - 신가촌) : 정민규 조직2차장 연행 구속.
- 5월8일 : 도시빈민대중지도자연석간담회(전빈연 준비위 80명, 군부대).
- 5월13일 : 서울시장 면담 결렬: 20일로 연기 - 결렬.
- 5월18일 : 5·18 민중항쟁 계승 실천대회(5월운동본부 주최단체로 가입, 80명, 명동성당).
- 5월19일 : 서철협 부회장, 동소문 돈암동 회장 이태교씨 연행 구속.
- 6월14일 : 아시아도시빈민대회: 민중들에게 삶의 자리, 전빈연 준비위, 평화촌, 신정동, 군부대, 난곡, 하월곡동 등에서 개최.
- 6월20일 : 도시빈민 대동제(전빈연 준비위 1,200명, 서강대, 서철협 800명, 화염병 투척시위).
- 6월28일 : 사당2동 이해영양 철거민장(도빈공투위 700명, 노계-충신대입구 전철역).
- 7월22-23일 : 전지역 임원진 수련회(서철협 90명, 금남의집).
- 7월26일 : 노점상 단속저지 7월대투쟁 지원투쟁(명동성당 50명).
- 7월30일 : 노점단속, 강패철거 저지 및 전노련 사수대회.
- 8월9일 : 사당2동 강제철거: 전투경찰, 구청철거반원, 포크레인, 15일까지 완전철거.
- 8월10일 : 사당2동 강제철거 규탄대회(서철협 150명, 중앙대).
- 8월15일 : 반노태우, 반민정당 규탄집회(영등포올구 선거 유세장, 서철협 150명).
- 8월16일 : 영구임대주택 입주요구 농성(서철협 1,200명, 과천종합청사).
- 9월4일 : 남현동 강제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 완전쟁취 결의대회(서철협 1,200명, 과천종합청사).
- 9월5일 : 남현동 강제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 완전쟁취 결의대회(서철협 500명, 과천종합청사) - 평화행진.
- 9월6-9일 : 평민당사 농성(서철협 60명).
- 9월23일 : 도화3공구 철거저지투쟁(중부 150명, 24일 70명, 25일 200명).
- 10월12일 : 동소문 돈암동 재개발조합 농성(100명).
- 10월14일 : 동소문 돈암동 성북경찰서 농성(300명).
- 10월17일 : 강패철거, 살인테러 규탄 및 임대주택 쟁취 진군대회(서철협 900명, 성공회성당 원천봉채 - 시경앞 원천봉채 - 서울역(300명) - 서울역광장(100명) - 명동성당 원천봉채 - 을지로 지하철(100명), 김성규 조직국장, 임석천 조직1차장 연행 구속).
- 10월19일 : 동소문 돈암동 목요기도회 결함.  
(기사연 120명, 기독교 회관 - 대학로 - 성대 - 돈암동).
- 10월22일 : 동소문 돈암동 경찰서 농성(300명).

- 10월23일 : 성북경찰서앞 농성 투쟁(400명).
- 10월26일 : 동소문 돈암동 이철(무소속), 평민당(설훈), 민정당(김정례) 지구당 농성.
- 10월31일 : 구로3동 강제철거: 포크레인 2대, 철거장패 150명, 13세대 전원 철거. 동소문, 돈암동 진입로 철거: 철거장패 400명, 전경차 10대, 최루탄. 주민500여명 바리케이트 치고 대치, 진입로 철거 후 물러 나감(주민 몸싸움).
- 11월1일 : 신림1동 조명자, 오명자씨 구속: 10월22일 단합대회 중 오물투척건
- 11월2일 : 방학동 주택조합(문정동)에서 이틀간 철야 농성. 구로3동 현대산업개발 농성(200명).
- 11월4일 : 전국도시빈민연합 건설을 위한 대중지도자 간담회, 선교교육원(100명).
- 11월7일 : 구로3동(현대산업개발 2차 농성, 70명), 구로동 주민 10명 연행후 풀려남. 이후 압구정 지하철역 앞에서 계속적인 철야 농성 진행.
- 11월11일 : "5공비리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 및 도시빈민 생존권 쟁취 전국대회"(고려대학교, 1500여명).
- 11월29일 : 신림1동 공가철거 철거반원 150명, 308채 완파, 주민40명 대치, 부상.
- 12월7-11일 : 신림1동 평민당사 농성: 동절기 강제철거저지.

1990년

- 3월20일 : 여의도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철거저지와 임대주택 쟁취 결의대회 개최.
- 4월20일 : YMCA강당에서 서철협 대중총회 개최.
- 5월23일 : 동소문 돈암 임대주택 쟁취 보고대회 개최.
- 7월28-8월18일 : 제1차 민중연대를 위한 여름한마당.
- 8월16-17일 : 서철협 회장단 하계 수련회.
- 9월6일 : 도시빈민 기본권 쟁취 및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를 위한 빈민학생연대투쟁.
- 11월9-12일 : 동절기 폭력철거규탄을 중심으로 평민당사 농성과 당사앞 집회.
- 11월25일 : 국민연합 주최 90민중대회 참가.
- 12월5일 : 홍은동 영구임대주택 쟁취.

1991년

- 1월25-2월21일 : 동계빈민 수련회(영천, 도곡, 금호, 신대방동).
- 3월4-8일 : 지자체 도시빈민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수서비리규탄과 지자체분리선거 반대농성 및 기자회견.
- 3월11일 : 신대방 세대위 구속자 환영 및 주민단합대회.
- 3월16일 : 국민연합 주최 수서비리규탄과 지자체분리선거 규탄 제1차 국민대회.

- 4월7일 : 서울지역민주단체연석회의 주최 민중운동 탄압 규탄과 민중연대 투쟁결의.
- 4월9일 : 금호동 집달리 철거, 곧 임시거주용 천막 세움.
- 4월14일 :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망 고 김봉환씨 사망 100일 규탄대회 참가.
- 4월19일 : 국민연합 주최, '수서비리, 수질오염, 민생탄압,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 참가.
- 4월24일 : 홍은2동 집달리 철거, 즉시 임시 거주천막 설치.
- 4월29일 : 고 강경대 열사 살해 규탄대회 참가.
- 5월1일 : 원진레이온 김봉환 노동자 산재 사망 및 강경대 학생 폭력 살인 규탄대회 - 범국민대책회의 참가.
- 5월4일 : 백골단 해체의날 - 국민대회 참가.
- 5월9일 : 민자당 해체의날 - 국민대회 참가.
- 5월18일 : 고 강경대 열사 장례식 참가.
- 5월23일 : 돈암동 영구임대주택 쟁취 1주년 기념 집회, 명동성당.
- 6월5일 : 청량1동 세대위 결성식.
- 6월8일 : 고 김귀정 학생 살인규탄 국민대회 참가.
- 6월10일 : 금호동 집달리 철거.
- 6월14일 : 영천 철거장패와 가옥주들 철거 시도.
- 6월26일 : 신대방동 강제철거 시도, 약 300여명의 장패 동원, 공가 7채 철거함.
- 6월27일 : 금호동 전면 철거.
- 6월28일 : 홍은1동 전면 철거(철거장패 300여명과 전경 1개 중대 동원 싸움이 철거), 토정동 공가철거 7채.
- 7월1일 : 홍은2동 우중(雨中) 철거. 6.28 전면 철거 이후 주민들이 노숙하려 처놓은 천막마저 찢어 철거함.
- 7월3일 : 신대방동 포크레인과 철거장패 동원하여 철거하려 함.
- 7월7일 : 금호동 철거. 폭우 중 가옥주들이 물러와 철거하자 저항하던 주민 6명 연행.
- 7월10일 : 양재동 철거반원 30여명이 철거.
- 7월20-26일 : 홍은2동 우중 강제철거 규탄 서대문구청 노상 농성 및 항의 집회.
- 9월7일 : 영천 철거 시도.
- 12월1일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결성 출범식 참가.
- 12월20-24일 :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운동 전개.

1992년

- 1월7일 : 신정6-1지구 동절기 강제철거: 철거장폐의 폭행에 주민 20여명 중상, 가옥 철거는 적었으나 주민 부상 극심.
- 1월8일 : 전일 철거 항의과정에서 다시 폭행당함. 미리 경찰에 신변 보호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 1월10일 : 행당1동에 철거 시도되었으나 잘 물리침.
- 1월14일 : 고 박종철 열사 추모5주기에 참가, 신대방동, 신정동 동절기 철거와 인권탄압 사례 발표.
- 1월15-2월 각 지역별 동절기 빈민학생 연대활동 수행.
- 2월22일 : 민자당 심판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참가.
- 3월5일 : 전국도시빈민협의회 발기인대회와 전국빈민연합 주최의 도시빈민생존권 쟁취 결의회 참가.
- 4월3일 : 신정6-1지구에 대대적인 강제철거 강행됨: 전경 7개중대, 철거장폐 400여명 동원. 대부분의 공가 완전 철거됨. 수십 명의 중경상자 발생.
- 4월9일 : 신정6-1지구 이춘복씨 구청항의 방문때 오물 투척죄로 구속.
- 4월11일 : 신정6-1지구 오정섭씨 연행, 구속.
- 4월30일 : 신정동 강제철거저지와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 주최로 '4.3 강제철거규탄 및 철거용역반 해체를 위한 결의대회'에 주민, 학생 300여명 참가. 대회후 구청까지의 평화행진 시도하자 40여명 연행하고 경찰들이 지역으로 난입하여 격돌. 다음날 새벽녘에 연행자 모두 훈방.
- 5월4일 : 신정6-1지구에 다시 철거장폐 400여명 들이닥침. 지도부 김형균씨 연행, 구속. 신정6-1지구에 철거저지를 위한 바리케이트 철거 명목으로 경찰 들이닥침. 이 과정에서 서철협 연사국 차장 임현주 연행, 구속. 신정동 강제철거 및 철거장폐의 폭력성에 초점을 둔 <진상조사활동>. 민주당 박계동의원, 강서양천시민회 등을 비롯하여 서철협, 신정동 임원진 함께 참가.
- 5월24일 : 고 강경대열사 추모 1주기 및 민중운동탄압 규탄대회(명지대) 참가.
- 6월9일 : 신정동 행정대집행으로 전면철거되고 주민들 지역밖으로 밀려남.
- 6월13일 : 전국민족민주열사 합동 추모제(연세대) 참가.
- 6월18일 : 신정동 생가 강제철거 규탄 및 가수용시설 보장 촉구대회: 양천구청 앞 200여명 참가.
- 6월30일 : 신정동 임시 천막 또다시 철거, 주민들 구청으로 숙식 장소 옮김.
- 7월1일 : 이태교 회장과 주민2명 양천서로 연행, 이태교 회장만 구류 3일 처분.
- 7월2일 : 신정6-1지구 세대위, 조합, 구청, 경찰 등 4자회담 통해 가수용시설부지 문제 타결.
- 7월9일 : 금호동 천막 철거, 성동구청 농성.
- 8월25-29일 : 영천구청 농성.
- 9월17일 : 청량1동 1차 철거.

- 9월 : 도화동 영구임대주택 쟁취.
- 10월2일 : 평화촌 강제철거.
- 10월9일 : 평화촌 영구임대주택 쟁취.
- 10월 : 도봉군인아파트 가입.
- 12월12일 : <철거민 겨울나기를 위한 문화공연> 개최.

1993년

- 1월 : 동계 빈민활동 수행.
- 2월16일 : 청량1동 2차 강제철거.
- 3월2일 : 우면동 대책위원회 현판식 참가.
- 3월13일 : 홍은1동 가수용단지 화재 7세대 전소, 동사무소 농성 돌입.
- 3월21일 :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참가.
- 4월8일 : 홍은2동 부분 철거(지역주민들 결합하여 즉시 복구).
- 4월28일 : <비리의원 국민소환을 위한 학생비상대책위원회>의 용산역 국민소환대회 참가.
- 5월6일 : 옥수5-2구역 세입자대책위 가입.
- 5월7일 : 금호1-6지구 주민총회 참가.
- 6월3일 : 청량1동 공권력 세대위 침탈, 신대방 민자당 항의농성 계속.
- 6월10일 : 전국연합 주최 6.10 시민한마당에 <철거민먹거리장터> 개최.
- 6월23일 : 군부대 지역결의대회.
- 6월24일 : 옥수동 세대위 현판식.
- 6월25일 : 현저동 1차 주민모임 결합.
- 6월27일 : 금호1-6지구 세대위 현판식 참가.
- 7월10일 : 현저동 2차 주민모임 결합.
- 7월17일 : 창립6주년 기념식 및 전국철거민조직건설 결의대회 개최.

1994년

- 1월12일 : 칼산 철거문제로 양천구청 농성.
- 1월13일 : 칼산 문군식 외 3명 구속.
- 1월15일 : 옥수동 구청 농성 후 가수용 공중 쟁취.
- 2월21일 : 신내동 현판식.
- 3월4일 : 청량리 풀리앗 투쟁 청량리 경찰서 항의방문 82명 구속.
- 6월5일 : 청량1동 가수용 입주식.

- 6월23일 : 전국철거민연합 창립중앙위원회 참가.
- 8월3일 : 목동 강제철거 규탄대회.
- 8월5일 : 칼산 입주식 및 구속동지 구출 결의대회.
- 8월7일 : 신도림동 철거민대책위원회 현판식.
- 8월19일 : 상계큰마을 강제철거.
- 8월23일 : 봉천6동 주거연합 세대위의 주민폭행, 새벽2시경 서철연 회원 500여명이 봉천6동에 연대, 현저동 주민 1인 부상, 입원.
- 8월24일 : 수색2-1지구에 새벽5시 공권력과 깡패 대거 투입. 정확기씨 적준용역 깡패에게 맞아 16주 진단.
- 8월30일 : 신정6-1지구 가수용입주 2주년 기념대회.
- 9월4일 : 서철연 창립대회. 거리행진 중 전경, 백골단의 무차별 진압으로 부상자 73명, 연행자 100여명, 지도부와 주민들 명동성당에서 연행자 전원 석방과 폭력경찰 엄중 처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 9월14일 : 수색2-1지구 현판식.
- 9월28일 : 연세대 노천극장 「민중연대한마당」 참가.
- 10월30일 : 목동 대동제.
- 11월5일 : 서철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발족: 신생지역 조직화 사업 추진.
- 11월6일 : 암사동 대동제.
- 11월13일 : 노동자대회(경희대) 200여명 참가.
- 11월20일 : 서초동 꽃마을자치회 대동제.
- 11월14-17일 : 신생지역 유인물 작업.
- 11월15일 : 신생지역 유인물 작업 중 봉천6동 어용세대위에 의한 적준용역 폭행사건 부상자 다수, 4명 사당의원에 입원.

1995년

- 1월5일 : 서철연 산하 상가공장연합 건설(5개 상가공장대책위가 소속).
- 1월10일 : 홍은2동 동사무소 투쟁.
- 1월12일 : 봉천6동 투쟁결의대회 및 현판식.
- 3월10일 : 봉천5동 철거민대책위원회 현판식.
- 3월15일 : 95 전국철거민대회.
- 3월16일 : 새벽5시30분 금호1-6지구 골리앗을 강제철거하려고 백골단, 전경, 철거깡패 1,000여명 투입, 투쟁과정에서 박균백씨 15m 골리앗 아래로 분신, 투신. 각 지역 철거민, 학생들이 즉각 연

대하여 철거깡패를 지역 밖으로 몰아내고 선전전과 함께 신당동4거리 점거, 성동경찰서 항의 방문 투쟁.

- 3월18일 : 시청 진격투쟁.
- 3월24일 : 청와대 진격투쟁, 전원 연행 중량서에 항의농성.
- 3월26일 : 연세대에서 규탄대회.
- 4월14일 : 빈민대회(중요공원).
- 4월24일 : 봉천2-2지구 상가공장대책위에 적준용역깡패가 들이닥쳐 강제철거.
- 4월25일 : 봉천6동 새벽 강제철거. 철거깡패 100명이 부녀자에게 성폭력 테러자행. 전철연 중심의 공동대책본부 건설, 지역사수와 선전전, 각 지역 연대.
- 4월30일 : 돈암동 영구임대입주 투쟁결의대회.
- 5월1일 : 노동절 대회 참석(서울대, 300여명 참석).
- 5월30일 : 전농3동 철거민대책위원회 현판식.
- 6월5일 : 청량1동 가수용입주2주년 기념대회.
- 6월10일 : 6.10민주항쟁 기념대회 성대 참석, 한국통신노조집회 마로니에 공원 참석.
- 6월27일 : 지자체 민중후보 6개지역에서 7명 입후보 선거투쟁(전농, 암사, 돈암, 칼산, 현저, 청량리).
- 7월9일 : 돈암동 영구임대사수투쟁위원회 현판식.

1997년

- 2월4일 : 철거민 故 신연숙열사 1주기 추모제.
- 2월15일 : 민병일씨 뇌사.
- 4월1일 : 철거민 故 민병일열사 민중장.
- 4월17-18일 : 3기 전철연 춘계수련회(제주도).
- 4월29일 : 서울 도원동 철거깡패 난입, 서철연 이태교의장 갈비뼈 골절(전치6주) 등 40여명의 철거민 부상.
- 5월1일 : 노동절(장충당공원) 참가
- 5월4일 : 서철연 도원동 철거민대책위원회 결성.
- 5월7일 : 故 박창수열사(노점상) 추모제 참석.
- 5월9일 : 노점단속규탄 전노련집회연대(강남역).
- 5월21일 : '가수용시설 쟁취와 철거용역 해체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용산역).
- 5월24일 : 민병일열사 제막식(마석모란 공원).
- 6월10일 : 도원동 강제철거. 적준용역 부녀자 2명 성폭행.
- 6월12일 : 신가촌 강제철거.

- 6월13일 :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백만노점 전진대회'(장충단공원,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
- 6월14일 : '6.10 항쟁 정신계승 결의대회'.
- 6월24일 : 전농동 골리앗 사수투쟁.
- 6월25일 : 민중연대학교(빈활사전교양학교).
- 7월25일 : 전농3동 강제철거(철거용역 300명, 공권력 600명 방화 철거). 농성중인 주민 10명, 18미터 골리앗에서 불길을 피해 투신, 9명 중상, 박순덕씨 녀사(26일 오전 6시경 사망).
- 7월26일 : 40여 단체가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결성.
- 7월29일 : 청량1동 철거민대책위 가수용단지 철거.
- 7월31일 :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청량리역 광장, 철거민, 학생, 노동자 1,000여명 참가)
- 8월11일 : '故박순덕열사 방화살인 책임자처벌·철거용역깡패 완전소탕·살인폭력 강제철거 절대금지법 제정·민주주거권 쟁취 전국철거민연합 농성단' 발대식(명동성당).
- 8월13일 :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방화살인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3차 투쟁대회'(청량리역 광장, 600여명 참가)
- 전농3동 골리앗 재사수투쟁.
- 8월16일 : 동대문구청, 선경본사 항의투쟁 및 선전전 시작.
- 8월18일 : 신한국당사 항의방문(후코쿠, 동성계약, 전철연 연대집회).
- 8월27일 :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를 위한 4차 투쟁대회'(종묘공원, 철거민, 학생, 노동자 600여명 참가, 선경본사앞 36명 연행).
- 9월2일 : 신한국당사 항의방문.
- 9월3일 : 국민회의당사, 감사원 항의방문.
- 9월10일 : MBC방송국 앞 - 공정언론 보도 촉구대회.
- 9월13일 :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방화살인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5차 투쟁대회'(청량리역광장, 400여명).
- 9월15일 :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방화살인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6차 투쟁대회'(청량리역광장, 100여명).
- 9월23일 : 전국경제인연합 항의방문.
- 9월25일 : '철거민故 박순덕열사 방화살인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고용승계 쟁취·용역깡패 철수·노조탄압, 민중생존권압살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종묘공원, 철거민, 노점상, 노동자, 학생 등 400여명 참가).
- 10월1일 : 서울지방경찰청 항의투쟁.

- 10월3일 : '살인폭력·공안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결의대회'(경기남부학투련, 후코쿠, 철거민).
  - 10월4일 : '철거민故 박순덕·학생 김준배 열사 폭력살인 규탄대회'(박순덕 비대위, 경기남부퇴진투본, 정치연대공동집회, 500명참가).
  - 10월11일 : '철거민故 박순덕·학생 김준배열사 폭력살인 규탄대회'(서울역 700여명).
  - 10월15일 : '청량리시장 강제철거반대 현대코아·동대문구청 규탄대회'(전노련집회 연대).
  - 11월2일 : 동대문구청장 사택 항의방문.
  - 11월6일 : '박순덕열사 방화살인 책임자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10차 투쟁대회'(청량리역 광장, 500여명).
  - 11월9일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 11월10일 : 경희의료원에 안치중이던 박순덕열사 시신 빼앗김. 동대문구청장실 점거투쟁. 현장 내 천막건립투쟁.
  - 11월21일 : '열사정신계승과 현장사수투쟁 승리를 위한 일일주점'(전농동 철대위).
  - 11월28일 : 국민회의 당사 점거투쟁.
  - 12월1-5일 : 농성단 교육일정 진행.
  - 12월13일 : 'IMF 경제싹박치반대! 재벌해체! 김영삼처벌!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연대투쟁대회'(서울역, 노동자·빈민·학생 1,500명, 전해투 후원의 밤 참가).
  - 12월16일 : 도원동 강제철거(주민 2명 중상 사당의원 입원).
  - 12월28일 : 전국철거민연합 명동성당 농성단 해단식.
- 1998년
- 1월17일 : '98동계빈민학생연대활동' 발대식(서울역 2시).
  - 1월20일 : 도원동 현판식.
  - 2월7일 : 도원동 골리앗 입성.
  - 2월10일 : 전철연 제4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 2월12일 : 전농3동 천막건립시 공권력 투입, 34명 연행.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 4인(김태영, 나만형, 박기호, 신권식)구속.
  - 2월14일 : 동대문구청·청량리경찰서 앞 매일 집회.
  - 2월23일 : 국민회의 당사앞 노동자집회 연대.
  - 2월20일 : 경제파탄 책임자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빈민대회'(종묘공원 12시).
  - 3월3일 : 서철연 임시 중앙위원회.
  - 3월21일 : 청량1동 일일주점.
  - 3월27일 : 도원동 강제철거(철거용역 200여명 지역난입, 공권력 300명 외곽봉쇄하에 단전·단수, 물대

- 포 동원하여 3박4일동안 골리앗을 향해 쏘아올림).
- 3월31일 : 이범휘, 백석호 폭력사건 : 고립된 도원동 주민들에게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러 도원동에 들어가려다가 철거용역들에게 발각되어 폭행당함.
- 4월2일 : '도원동 강제철거 책임자처벌과 이범휘, 백석호 살인적 고문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대회' 현장 펜스 앞(철거민, 학생 등 400여명 참석, 골리앗과 이원방송집회).
- 4월4일 : '도원동 강제철거 책임자처벌, 이범휘, 백석호 살인적 고문폭력 진상규명 투쟁대회'(탑골공원, 철거민, 학생등 700여명).
- 4월12일 : '도원동 살인철거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연대 투쟁대회'(서울역, 800명).
- 4월14일 : SBS '뉴스추적' - 도원동 철거사태 집중방영.
- 4월20일 : 삼성본사 앞 서명운동 및 선전전.
- 4월21일 : 도원동비대위<진상조사위원회> 1차모임(대학로).
- 4월23일 : 도원동 골리앗 강제철거(철거용역300, 전투경찰 2,000명, 건설회사 직원 및 구청, 경찰들이 동원된 가운데 물대포, 고공침투용 중장비등을 이용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강제철거. 당일 방송3사 집중보도).
- 4월25일 : '도원동 강제철거 규탄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용산역, 800명).
- 4월27일 : 용산구청 점거투쟁(도원동 주민 14명).
- 4월28일 : 도원동 철대위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투쟁 시작.
- 4월30일 : 노동절 전야행사 -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시 재정마련사업(연세대).
- 5월1일 : 노동절 참여(종묘공원).
- 5월4일 : 도원동 주민 등 용문동사무소 방문(천막요구-농성자 12명 용산서로 연행, 문연입, 조영복, 송경란 구속).
- 5월11일 : '도원동 강제철거 규탄과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대회'(삼성본사 앞, 정오12시).
- 5월12일 : 각 대학 대동제 주점 사업.
- 5월14일 : 용산구청 앞 매일집회. 용산경찰서에서 정리집회자 연행(김효수, 권명화 구속).
- 5월19일 : '도원동 강제철거 편파수사 분쇄와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삭발, 단식투쟁선포(용산구청 앞, 김범성위원장 연행·구속).
- 6월9일 : '도원동 강제철거 책임자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대회'(법국민운동본부 주최, 용산구청).
- 6월12일 : '6.13투쟁 정신계승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백만노점 전진대회' 참가(전노련 주최, 장충단공원).
- 6월20일 : 'IMF위령제 및 제3차 실업자대회' 참가(법국민운동본부 주최, 서울역).
- 6월22일 : 황학동 재개발지구 설명회 개최(오후9시, 3.1아파트 20동 215호).

- 7월16일 : 황학동대책위 출범식. 황학동 삼일아파트 22동 앞에서 철거민, 노점상 약 100여명이 모여 개최.
- 7월22일 : 전국철거민연합 제4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인천 송현철대위, 12시).
- 7월25일 : '철거민 故 박순덕열사 제1주기 추모 및 열사정신 계승대회'(오후2시 청량리역 광장).
- 8월4일 : 용산구청앞 도원동 비닐천막 철거 및 살림살이 강탈(주민전원 연행, 최경숙위원장대행 구속).
- 8월6일 : 살림살이 반환을 요구하는 도원동 주민 또 다시 강제연행.
- 8월16일 : 97, 98 구속동지 출소환영회(행당철대위).
- 8월18-22일 : 제2차 공동빈활(오전동, 청량1, 전농3, 홍제)
- 9월3일 : '도원동철거민 폭력탄압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법국민운동본부 주최, 용산구청, 남경남의장 강제연행)
- 9월5일 : 전철연 임원진총회(용산구청).
- 9월12일 : 실업자대행진(12시 삼성본사 앞 사전집회, 2시 종묘공원 본집회, 명동성당 정리집회).
- 9월19일 : 철거민 구속자 구출 및 행당동 철대위 투쟁기금마련 하루주점. 법국민 열사추모대회(서대문 독립공원, 3시).
- 9월23일 :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처벌과 빈민생존권 쟁취 투쟁대회'(전빈련(준) 주최, 서울역, 12시).
- 9월29일 : IMF법국민운동본부 주최 도원동집회(용산구청, 11시).
- 10월24일 :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투쟁대회'(용산구청, 12시).

### 3) 각 연도 회원지역

괄호 안의 숫자는 지역별 가구수이다.

#### 1988년 말

동부지역 : 평화촌(14), 석촌동(35), 석촌2동(20), 문정동(5), 신가촌(45), 전농동(14), 장지동, 계룡리, 답십리4동(19), 면목동(3)

남부지역 : 남현동(40), 양평동(8), 신림2동(20), 신림10동(40), 구로3동(20), 양재동(25), 잠원동(100), 법원단지(700), 꽃마을(350), 청사앞(400), 달동네(80), 대아(50), 대아2, 개포동

(350), 도곡1동, 88마을(400), 구로6동(40), 사당2동(800), 철산리(3), 하안동

중부지역 : 동소문 돈암동(1,000), 도화1공구(26), 도화3공구(18), 창신동(27), 봉래동(120), 엄지미(13), 홍은동(324), 신정2동(43)

1989년 4, 5월경

동부지역 : 평화촌(14), 석촌1동(18), 석촌2동(17), 신가촌(37), 전농동(14), 답십리4동, 답십리1동(60), 은호연립(4), 삼성동, 장지동, 계룡리

남부지역 : 남현동(25), 양평동(8), 신림2동(20), 신림10동(20), 구로3동(20), 구로6동(40), 도곡1동, 도곡3동(40), 군부대앞(350), 대아(50), 양재동(25), 양재동(8), 개포동(700), 사당2동(400), 법원앞, 객골, 청사앞, 잠원동, 신림1동(90), 신대방동(700)

중부지역 : 동소문 돈암동(1,000), 도화1공구(26), 도화3공구(9), 창신동(26), 신정동(43), 방학동(65), 원효로(8), 목1동(5), 목2동(5), 홍은동(324), 공덕동, 봉래동, 신문로, 인사동, 서부이촌동, 마포아파트

1989년 말

동부지역 : 평화촌(14), 석촌1동(18), 석촌2동(17), 신가촌(25)

남부지역 : 남현동(14), 군부대앞(400), 구로6동(18), 도곡3동(39), 대아(55), 사당동(60), 염곡동(40), 신림1동(87), 신대방동(309)

중부지역 : 홍은동(300), 신정동(38), 원효로(10), 도화1공구(21), 창신동(26), 양평동(8), 방학동(35), 동소문 돈암동(400)

기타 : 양재동, 신림10동, 전농동, 장지동, 계룡리, 거여동, 문정동, 신문로, 법원앞, 청사앞, 객골, 서울고앞, 개포동, 88마을

1993년

군부대앞자치회(비닐하우스촌, 400여세대), 대아마을(비닐하우스촌, 60세대), 도봉군인아파트대책위(쓰레기소각장, 지하철 7호선 건립, 180세대), 돈암동(합동재개발, 80세대), 신대방(주택조합, 35세대), 신정6-1(합동재개발, 90세대), 양재동(무허가 천막촌, 1세대), 옥수5-2(합동재개발, 5세대), 청량1동(합동재개발, 1,200세대), 토정동(주택조합, 7세대), 홍은1동(합동재개발, 68세대), 홍은2동(조합주택, 1세대)

1994년

• 94년 6월까지

군부대앞자치회(비닐하우스촌, 400여세대), 대아마을(비닐하우스촌, 60세대), 도봉군인아파트대책위(쓰레기소각장, 지하철 7호선 건립, 180세대), 돈암동(합동재개발, 80세대), 신정6-1(합동재개발, 90세대), 옥수5-2(합동재개발, 3세대), 청량1동(합동재개발, 300세대), 홍은1동(합동재개발, 68세대), 홍은2동(조합주택, 1세대), 현저동(합동재개발, 70여세대), 칼산(합동재개발, 23세대), 상계4동(현재개발, 20여세대), 목1동(택지개발, 39세대), 종암동(합동재개발, 10여세대)

• 94년 8월까지 추가 가입 및 변경 사항

암사시영아파트(재건축, 150세대), 공덕동(재건축, 20세대), 청량1동(합동재개발, 23세대), 홍제4동(합동재개발, 6세대), 옥수동(합동재개발, 2세대), 상계4동(현지개발, 5세대), 수색2-1지구(합동재개발, 70세대), 신도림동(합동재개발, 4세대), 상계1동 큰마을(재건축, 18세대)

1995년

돈암동(합동재개발, 70세대), 신정6-1지구(합동재개발 98세대), 청량1동(합동재개발, 40세대), 암사동(재건축, 100세대), 종암2동(합동재개발, 5세대), 대아마을(비닐하우스, 60세대), 도봉군인아파트(쓰레기소각장, 지하철7호선 건립, 세입자들은 미조직 상태, 180세대), 공덕

동(재건축, 20세대), 군부대앞자치회(비닐하우스, 400세대), 홍은1동(합동재개발, 68세대), 홍은2동(주택조합, 1세대), 홍제4동(합동재개발, 6세대), 현저동(합동재개발, 70세대), 칼산(합동재개발, 23세대), 묵동(택지개발, 39세대), 옥수동(합동재개발, 2세대), 수색2-1지구(합동재개발, 55세대), 우면동(자연부락)

1996년

가락본동(주택조합), 금호1-6(합동재개발), 꽃마을자치회(자연부락, 비닐하우스), 돈암동사수위(합동재개발), 신정6-1(합동재개발), 청량1동(합동재개발), 암사2동(재건축), 종암동(합동재개발), 홍은2동(주택조합), 현저동(합동재개발), 묵동(택지개발), 수색(합동재개발), 우면동(자연부락), 봉천5동(합동재개발), 봉천6동(합동재개발), 상계3-1(합동재개발), 상계3-2(합동재개발), 전농3동(합동재개발), 금호6동(합동재개발), 봉천2동(합동재개발), 금호6동 상공(합동재개발), 봉천2-2 상공(합동재개발), 봉천7-1 상공(합동재개발), 하왕2-1 상공(합동재개발), 금호1-6 상공(합동재개발)

\* 상공(상가공장) 조직 요구사항은 가수용단지 내 상가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이다.

1998년 현재 현황

(1) 임시시설(가이주단지) 요구중인 활동지역

지역	가구수	비고
영등포구 신길동	약20가구	연합 탈퇴
마포구 도원동	22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7가구	
용산구 산천동	2가구	일반 단독주택 임시 입주
강동구 암사동	5-6가구	일반 주택 임시 거취(재건축)
방배4동	5가구	
행당2-2지구 상가	9점포	
송실상가	44점포	
상도2구역	10가구	재건축
금호12지구	70여가구	상가대책위+주민대책위

(2) 임시시설(가이주단지) 입주지역

지역	주소	가구수	비고
수색2-1	은평구 수색동 산1번지	22가구	활동 중지
금호8	성동구 금호4가	18가구	
돈암동	성북구 돈암2동	71가구	30세대 임대주택 입주, 31세대 임시시설 잔류
청량1동		14가구	천막생활
현저동	서대문구 현저동	10여가구	연합 탈퇴
홍제동	서대문구 홍제4동		활동 중지
봉천5동	관악구 봉천5동	100가구	활동 중지
종암동		2가구	일반 주택 임시 입주
상계3-1		2가구	일반 주택 임시 입주
도원동	마포구 도원동	5가구	



부록 자료로 본 철거

(3) 임대주택 입주지역

지역	주소	가구수	비고
목동	중랑구 목1동	30여가구	활동 중지
갈산	양천구 신정7동		활동 중지
홍은동	서대문구 홍은2동		활동 중지
신정6-1	양천구 신정2동		활동 중지

4) 관련 자료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서철협 제6주년 기념식 '전국철거민조직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 1993.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서철협 7주년 기념대회 및 전철연 결성 결의대회, 1994.6.12.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창립중앙위원회 자료집, 1994.8.28.
- 전국철거민연합, 94 동절기 주민교육자료집.
- 전국철거민연합, 제1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자료집, 1995.1.15.
- 서울철거민연합, 고 정상률 빈민해방열사 6주기 추모제 자료집, 1995.2.18.
- 서울철거민연합, 제1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자료집, 1995.5.6.
- 서울철거민연합, 제2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자료집, 1995.7.15.
- 전국철거민연합, 제2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자료집, 1995.7.23.
- 전국철거민연합, 제2기 상반기 임시 중앙위원회 자료집, 1996.2.4.
- 서울철거민연합, 제2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자료집, 1996.7.13.
- 전국철거민연합, 제4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1998.2.10.
- 전국철거민연합, 제4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1998.7.22.

◆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대회(조선일보 - 93/06/28)

서울등 전국 5개 시-도 철거민협의회 소속 철거민 1천5백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 전철협/회장 이호승)창립 기념대회를 갖고 정부 당국에 강제철거 금지 및 개발지역 주민보호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지난 5.6공 정권하에서 무자비하게 진행되던 강제철거가 김영삼문정부 아래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 폭력적 강제철거 법적금지 ▲ 개발지역 철거민 임시거주 보장 ▲ 국민거주권 법적명문화 등 3개항을 요구했다.

◆ [지역 24시] 철거민 주거권 보장 촉구(한겨레-93/07/22)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뒷전으로 떠밀려난 전국 10여만 철거민이 당국에 생존권 차원에서 최소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거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22일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철거민 시·도협의회와 지역위원회 대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강제철거금지법 제정 촉구결의대회'를 계기로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철거민들이 이렇듯 한목소리로 강제철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철거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 '재개발법'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법은 개발 및 사업시행 주체를 위한 것일 뿐 정작 철거민은 '우는 아이 젖주는 격'으로 항상 수혜의 대상으로 비쳐왔다는 현실 인식이다. 따라서 철거민들은 개발의 피해자로서 더이상 밀려날 수만은 없고 정당한 법적 구제의 대상이라는 권리선언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개발→강제철거→물리적 충돌'이라는 악순환은 끝없는 소모전만 불러올 뿐 철거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들 철거민의 경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집 없는 설움과 절망'이 무엇보다도 정부의 가진 자 위주 개발정책과 토지 소수집중화 현상을 불러온 토지관리의 잘못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철거민은 그렇다고 정부의 일방적 수혜에 기대기보다는 대책 없이 내쫓고 내쫓기는 현행 철거정책이, 일정기간 철거 유예기간을 두거나 임시 이주단지를 정부가 조성해줌으로써 철거민이 스스로 내집 꿈을 실현하고 동시에 투기꾼들의 농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철거 정책으로 바뀌어 법제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제철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남경남 본부장은 "'개발지역주민보호법'과 '강제철거금지법' 두 가지를 놓고 현재 시안 검토중인 이 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현실성 있는 철거정책의 제시를 통해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일궈나가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철거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전국에 분산 고립돼 있던 1백70여 개 지역주민대책위 소속 철거민 11만여명이 지난 6월28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회장 이호승·38)를 창립하면서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전철협 이호승 회장은 “철거민들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방치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범죄행위이므로, 정부가 철거민의 최소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철거민] 전국 연합회 결성키로(한겨레신문 - 1994/06/12)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회장 이태교) 회원 3백여명은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성북구민회관 앞마당에서 창립 7돌 기념식 및 해단식을 갖고 오는 23일 조직을 확대개편해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더욱 효과적인 철거투쟁을 위해 각 지방의 철거민조직을 규합하는 전국단위의 철거민 조직을 결성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서울] 전국철거민연합 23일 출범(한겨레신문 - 94/06/21)

서울시 철거민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철거민 단체를 망라한 '전국철거민연합'이 23일 발족한다. 전국철거민연합 준비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무주택 철거민에게 공영임대주택을 분양할 것과 입주전까지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서울 행당2동에서 철거용역 인부가 알몸으로 부녀자를 위협하는 등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폭압적으로 짓밟히고 있다” 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당국에 촉구하는 등 철거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떠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수원서 철거민 대책 강연회(조선일보-94/08/19)

전국 철거민협의회(회장 이호승)는 19일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개발지역 주민 보호법과 강제 철거 금지법등의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열린교회에서 30여명의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거민대책 강연회를 갖고 “철거민은 잘못된 토지.주택정책으로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 이라며철거민 문제를 시민 자구운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또 “재개발법은 일제가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대책없는 강제철거로양산되는 철거

민들의 아픔을 막기 위해 강제철거금지법등 관련법을 만들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 [철거민] 서울철거민연합회 창립대회(한겨레-1994/09/04)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세입자와 가옥주 등으로 이뤄진 서울철거민연합(의장 양해동) 소속 회원과 시민 등 5백여명은 4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묘공원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뒤 명동성당 앞까지 2.2km 구간을 거리행진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 결의문에서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히 환경이나 거주민의 생활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건설업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땀질식 개발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수많은 철거민들을 양산하고 있다” 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강제철거 반대 △신공안정국 분쇄 등을 다짐했다.

◆ 철거민.노점상 1천5백여명 성균관대서 항의 집회(중앙일보 - 1995/03/25)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과 대학생등 1천여명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에서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및 노점상 탄압반대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중 일부는 집회가 끝난뒤 학교밖 2백여m까지 나가 진출을 시도하며 화염병 1백여개를 던지는 등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심한 충돌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점상 단속, 재개발지역 주민 강제철거 등 민중생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연대 노천극장에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최씨의 장식을 가진뒤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노제를 가질 예정이다.

◆ [시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빈민대회 열려(한겨레신문 - 1995/04/15)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6개 사회단체 소속 회원 1천여명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빈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노점상 등 빈민의 생존권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용역반을 고용해 노점상을 단속하고 빈민 거주지역을 강제철거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며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과 강제철거를 즉시 중지하라” 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끝낸 뒤 종묘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경찰] 도원동 재개발지역 농성자 5명 구속(한겨레신문 - 1998/04/26)

서울경찰청은 26일 재개발 지역에서 구청쪽의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로 전국철거민연합회 사무차장 조가영(23·여)씨와 세입자 최강식(5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34·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에서 한달 가까이 농성을 벌여온 조씨 등은 지난 23일 낮 12시에 용산구청 소속 철거반원들이 세입자들의 농성장소인 철탑을 강제 철거하는데 맞서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철거민연합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철거 이후의 임시수용단지 설립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철거반원들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거꾸로 피해자인 세입자들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법집행”이라며 “27일부터 항의 시위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용산구청은 지난 23일 도원동 재개발 지역 농성자들에 대한 강제해산 작업을 벌여 한달 남짓 세입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철탑을 철거하고 농성자 30명 전원을 연행했다.

◆ [철거] 전철연회원 30여명 도원동 철거 항의집회(한겨레신문 - 1998/04/27)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역에서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30여명이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당국의 강제철거와 세입자 형사처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개발지역 안에 망루를 세워놓고 한달 남짓 생라면 등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철거에 맞서 싸워온 세입자들이 강제해산된 것은 지난 23일. 게다가 경찰은 '합법적인 법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농성자 30명 전원을 연행해 최광식(49)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5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혜영(24) 전철연 사무차장은 “한달 전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언어맞아 세입자 두명이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당국은 세입자들만 무더기로 구속하는 형평에 어긋난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용산역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각, 세입자 14명이 용산구청장실을 찾아 설송웅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설 구청장은 “민원인이 찾아와 얘기하고 있으니 만날 수 없다”며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았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 세입자는 “강제철거 전날인 22일까지도 구청쪽이 '조합과 잘 협상해보라'고 말하더니 바로 다음날 새벽에 기습 철거를 할 수 있느냐”며 비난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감이 들뿐입니다.” 이제는 오갈 데도 없어 닳새째 전철연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는 한 세입자의 주름진 얼굴 저편으로 '살기 좋은 용산'이라는 구청의 큼지막한 구호가 겹쳐지고 있었다.

## 4.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관련 자료

### 1) 1998년 현재 조직구성

- ◆ 대표자 - 3인 대표제로 김진홍 목사, 한경석, 노태구
- ◆ 대의원 - 200여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10세대당 대의원 1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 ◆ 임원진 - 3인대표, 중앙집행위원장 유영우, 사무총장 김영준, 감사 3인 김성훈 목사, 장옥자 수녀, 김성규, 정책훈련원장 김영준

### 2) 주요 일지

#### 1990년

- 1월20일 : 40여명 대중지도자들이 모여 서강대에서 준비위원회 결성(준비위원장으로 제정구, 김진홍씨 공동선임).
- 6월3일 : 서강대에서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창립대회(공동대표: 김진홍, 김정희씨).
- 9월23일 : 신천동 재개발2지구 단합대회(800여명).
- 10월28일 : 노량진 본동에서 세입자 단합대회 및 공권력 철거 규탄대회 가짐.
- 11월18일 : 서강대에서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30개 지역 임원단 간담회.

#### 1991년

- 1월12일 : 방화동에서 서부지역 대의원대회. 경찰에 의해 평화행진 봉쇄 당함.
- 1월13일 : 통일촌에서 동부지역 대의원대회와 단합대회, 동부지역위원회 결성.
- 1월19일 : 노량진 본동에서 지역대회를 가지고 회원 백영애씨 연행에 대한 항의로 지역주민 100여명과 함께 노량진경찰서 항의 시위.
- 1월20일 : 상계동431번지에서 300여명이 참석, 북부지역 단합대회 겸 대의원대회 가짐.

- 2월3일 : 서강대에서 30개 지역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91년 제2기 1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공동대표에 제정구, 김진홍, 김정희씨, 중앙집행위원장은 김영준씨 선임).
- 2월11일 : 주거연합, 국민연합, 민중당 공동 주최로 『수서특혜분양 규탄 국민대회』를 홍사단에서 개최.
- 3월13일 : 기초의회 선거에 주거연합이 추천한 후보자 6명 입후보.
- 3월27일 : 기초의회 선거에서 부천 주거연합의 고강동에서 오강렬 위원장, 은행2동에서 성남 주거연합의 이상락 집행위원장이 당선.
- 4월21일 : 장충단공원에서 1,200여명 참석하여 『주거권쟁취결의대회』 개최.
- 5월3일 : 『고 강경대열사 살인폭력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참가.
- 5월4일 : 경희대에서 『구속자 돕기 하루주막』 개최.
- 6월2일 : 관악산에서 『창립 한돌 기념 및 전진대회』 개최.
- 9월3일 : 아현동성당에서 『제1기 세입자사회학교』 개강.
- 11월11일 : 방화지구 가이주단지 입촌식.
- 11월16일 : 주거연합을 비롯하여 경실련 외 18개 단체가 공동주최 『경제개혁 촉구 시민대회』를 탑골공원에서 개최.

1992년

- 1월26일 : 경희대에서 60개 지역 1,200여명 참가하여 『92년 제2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 2월21일 : 세입자사회학교 제2기 개강.
- 4월30일 : 탑골공원에서 1,300여명 참가하여 『강제철거저지 및 주거권쟁취 전진대회』 개최.
- 6월6-7일 : 경희대에서 『무주택자의날 선포 및 주거연합 창립3주년 단오한마당』 개최.
- 9월22일 : 제1차 정책토론회 『세입자 이주대책중 가수용시설 설치에 관해』 개최.
- 10월18일 : 신내동에서 400여명 참가하여 북부지구 전진대회 개최.
- 11월14일 : 수색동에서 300여명 참가하여 서부지구 전진대회 개최.
- 12월25일 : 도봉동에서 『집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대축일미사』.

1993년

- 2월28일 :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93년 제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공동대표에 김진홍, 김영준씨, 중앙집행위원장에 한경섭씨 선임).
- 4월24일 : 탑골공원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동산투기 비리규탄 및 93년 주거권 쟁취대회』 개최.
- 6월13일 : 수락산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주택자의 날 1주년 및 주거연합 4주년 기념대회』

개최.

- 11월2일 : 한강시민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가하여 『주거권입법화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
- 12월12일 : 서강대에서 『동절기 철거민을 위한 일일주점 및 송년회』 개최.

1995년

- 1월22일 : 세대위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 2월4일 : 중계동 광석마을 강제철거 300여명 참여 저지투쟁.
- 2월5일 : 주거연합 관악 동작지구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 2월10일 : 중계동 광석마을 강제철거로 500여명 참여, 저지투쟁, 노원경찰서, 노원구청앞 시위.
- 2월11일 : 주거연합 동부지구 출범식 겸 거여동 가이주단지 입촌식 개최.(19세대 가이주단지 입주)
- 2월12일 : 북부지구 출범식 개최.
- 2월16일 : 봉천 7-1재개발 지구 강제철거 사태로 300여명이 저지투쟁과 조합 항의 농성
- 2월19일 : 성동 동대문지구 출범식 및 하왕 1-3지구 현판식 개최.
- 2월22일 : 무악동 잦은 화재로 재개발조합 항의 농성.
- 2월26일 : 중부지구 출범식 개최.
- 3월19일 : 무악마을 자율방범대 출범식 개최.
- 4월5일 : 중계동 광석마을 주민한마당 개최(400여명).
- 4월6일 : 무악동 재개발조합 항의농성.
- 4월14일 : 중계동 광석마을 해결을 위한 노원구민 긴급대토론회 개최.
- 4월19일 : 중계동4-2 재개발지구 세대위 현판식 개최.
- 4월23일 : 부천시 5 송내동 세입자대책위 현판식 개최(500여명 참석).
- 4월25일 : 폭력철거 근절 및 전월세 안정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800여명 참석).
- 5월11일 : 홍제3동 세입자대책위 현판식 개최.
- 5월14일 : 안산시 사리 세입자 대책위 현판식 개최(500여명 참석).
- 5월28일 : 무주택자의날 주간 선포식 및 단오한마당 개최(500여명 참가, 무악마을).
- 5월29일 : 무주택자의 권리선언 각계인사 300인 기자회견.
- 5월28-6월4일 : 무주택자의날 주간행사.
- 6월2일 : 무주택자의 날 3주년 정책토론회.
- 6월3일 : 주거연합 북부지구 현판식.
- 6월4일 : 무주택자의날 3주년 캠페인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서울시정 개혁을 위한 시민견기대회' 개최(700여명 참석).
- 6월4일 : 금오행당 단오맞이 주민한마당.

- 6월7일 : 중계4-2지구 주민 성추행사건으로 항의 시위.
- 6월11일 : 신당3동 세대위 1주년 주민한마당 개최.
- 6월21일 : 23일 중계동 광석마을 주거쟁취를 위한 노원구청 농성투쟁.
- 8월1-3일 : 주거연합 하계수련회(120여명 참석, 강화동 동막해수욕장).
- 8월21일 : 하왕2-1지구 가이주 단지 쟁취를 위한 성동구청 항의 농성에 500여명 참가.
- 9월23일 : 인천시 석바위시장 세입자대책위 현판식 개최.
- 9월24일 : 이문동 세입자대책위 현판식 개최.
- 9월28일 : 빈민진영 통합사무실 개소식 개최(200여명 참석).
- 10월1일 : 하왕5지구 세입자대책위 현판식 개최.
- 10월9일 : '96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결성.
- 10월14일 : 상도1지구 세입자대책위 현판식 개최.
- 10월22일 : 하왕 2-1지구 주민 102세대 가이주단지 입촌식 개최(500여명 참석, 마을이름 송학마을).
- 10월25일 : 무악재개발조합에 항의 온성중 폭력배 집단난입 사건으로 400여명이 서대문경찰서앞 항의시위.
- 10월27일 : 부천시 소사동 강제철거 연대(300여명이 참가).
- 10월30일 : 무악마을 폭력사건 항의 종로구청 항의 농성투쟁(400여명 참석).
- 10월31일 : 북부지구 전진대회와 양돈마을 주거권쟁취대회 개최.
- 11월6일 : 주택예산증액과 재개발법 입법촉구 국민대회 개최(1,500여명 참석).
- 11월19일 : 무악동 세대위 1주년 기념 가이주단지 쟁취대회 개최.
- 11월28일 : 부천시 소사동 위원장 구속으로 항의 농성.
- 12월10일 : 주거연합 송년의밤 행사를 실무자인 박지숙씨의 신장이식수술비 마련을 위한 자선의밤 행사로 개최(800여명 참석, 수술비 1,000여만원 모금).

1996년

- 1월11일 : 이문동 재개발지구에 강제철거 사건으로 300여명이 참석하여 강제철거 저지투쟁과 동대문구청에서 항의농성 8시간.
- 2월11일 : 주거연합 96년 전체 회원 총회. '9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주거회의 한국지역 주민대회 (31개지역 주민 800여명 참가하여 서강대 메리홀에서 개최)
- 3월3일 : 강북구 미아6동 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 300여명 참석.
- 3월6일 : 고양시 성신마을 강제철거 사태로 강제철거 규탄집회와 고양시청 항의 농성투쟁(400여명 참석).
- 3월22일 : 주거연합 경기도지부 96년도 출범식이 30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

- 3월24일 : 주거연합 성동 동대문지부 96년도 출범식이 400여명이 참석하여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개최.
- 3월27일 : 무악재개발지구 가이주단지 설치를 요구하며 종로구청 항의 농성(400여명 참석).
- 3월27일 : 미아6동 강제철거 사태로 조합앞 시위중 주민 15명이 중앙경찰서에 연행당하는 사건발생. 이에 200여명이 중앙경찰서에 항의 농성.
- 4월21일 : 행당 1-2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에 400여명 참석.
- 4월23일 : 부천시 송내동 강제철거 방침에 선대책을 요구하며 부천시청에 200여명이 참석하여 항의 농성.
- 4월18일 : 주거연합 북부지부 96년 출범식에 300여명이 참석하여 강북구 미아6동에서 개최.
- 4월20일 : 주거연합 동부지부 96년 출범식을 송파구 통일촌에서 300여명 참석하여 개최.
- 4월26일 : 미아6동 강제철거 사태가 발생하여 300여명이 저지투쟁.
- 5월20일 : 세계주거회의 참가 및 폭력철거 근절을 위한 주거권실현 국민대회(30여개 지역 500여회원 참가하여 탑골공원에서 개최)
- 5월29-6월14일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주거연합 집행부 5명이 참가.
- 6월2일 : 무주택서민의 주거빈곤퇴치를 위한 등반대회에 100여명이 참가, 도봉산에서 개최.
- 6월9일 : 미아7동 재개발 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을 4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7월4일 : 안산시 초지동 강제철거 사태로 2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
- 7월21일 : 미아1동 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에 600여명 참석.
- 7월28일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택지개발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 현판식에 400여명 참석.
- 8월12-15일 : 주거연합 하계수련회가 200여명이 참석하여 강원도 인구공소에서 개최.
- 9월15일 : 부천시 상동 택지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에 500여명 참석.
- 10월6일 : 성동구 금호6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주민 23세대의 가이주 단지 입촌식을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마을 이름 바당고을).
- 10월13일 : 삼양시장 세입자 대책위원회 현판식에 300여명 참석.
- 10월20일 : 전농로타리시장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에 300여명 참석.
- 10월25일 : 안산시 초지동에 강제철거사태로 2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투쟁.
- 10월27일 : 오류시장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에 300여명 참석.
- 10월29일 : 미아7동에 강제철거로 4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투쟁과 조합앞 거리시위. 이 과정에 87명이 북부서에 연행당하여 북부서앞 거리시위(18명 즉결에서 각각 구류 3일에서 5일형).
- 11월10일 : 종로구 무악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회원 68세대의 가이주 단지 입촌식에 400여명 참석.
- 11월15일 : 안산시 초지동 주민 7세대가 가이주 단지에 입주.

11월 : 하왕5구역 15세대 주민이 가이주 단지에 입주.

1997년

- 3월13일 : 주거연합 97년 대의원 총회(200여명의 대의원 참석).
- 3월23일 : 안산주거연합 창립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4월3일 : 이문동과 행당1-2지구 강제철거 사태 발생하여 500여명 참석, 저지투쟁.
- 4월12일 : 문정동 새마을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에 200여명 참석.
- 4월13일 : 광명시 소하동 세입자대책위 현판식에 500여명 참석.
- 4월20일 : 부천 한다리 지역 주민대책위 현판식에 400여명 참석.
- 5월10일 : 성북시장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을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5월16일 : 행당1-2지구 폭력철거 및 민생치안 부재 규탄시민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5월25일 : 생존권실현을 위한 영세상인연합 창립대회가 7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 무주택자의날 주간 행사(6월3일부터 10일)
- 6월3일 : 무주택자의 날 기념대회
- 6월5일 : 집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
- 6월8일 : 단오 한마당
- 6월7-10일 : 대학로에 강제철거 사진 비디오 전시회
- 6월10일 : 국민대동제 참여
- 6월15일 : 부천주거연합 창립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7월4일 : 부천시 상동에 강제철거 사태로 4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투쟁과 시청앞 거리시위.
- 7월9일 : 부천 상동 폭력철거 규탄 시민대회를 부천시청앞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7월31-8월3일 : 주거연합 하계 수련회(150여명 참석, 강원도 소금강).
- 10월9일 : 행당동 강제철거사태로 4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투쟁과 성동구청앞 항의 시위.
- 11월10일 : 난곡 종합시장 세입자대책위 현판식을 300명이 참석하여 개최.
- 11월12일 : 행당동 성추행 규탄대회를 2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12월1일 :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대회에 400여명 참석.
- 12월7일 : 주거연합 후원회밤 행사
- 12월14일 : 정릉4동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을 3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12월20일 : 용산구 도원 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을 3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1998년 전반기

1월6일 : 성북시장 강제철거 사태로 100여명이 저지투쟁.

- 1월16일 : 문정동 새마을 강제철거 저지투쟁(7명 연행).
- 1월17일 : 문정동 주민 7명 즉결 벌금형
- 2월5-12일 : 도원동 불법 강제철거로 주민부상, 저지투쟁.
- 2월13일 : 도원동 강제철거 시도(강제철거 감시단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항의방문)
- 2월14일 : 성동지부 논골 생산공동체 창립총회, 도원동 강제철거 시도 저지투쟁
- 2월18일 : 부천지부 남창건설 공동체 창립총회
- 2월20일 : 안산주거연합 수자원 공사 세입자 대책요구농성
- 3월2일 : 안산지부 시흥시청 세입자대책요구 농성 투쟁.
- 3월11일 : 부천주거연합 사무실 개소식.
- 3월17일 : 주거연합 8차 대의원 총회를 15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
- 3월20일 : 비닐하우스 연합 준비위 수련회
- 3월27-29일 :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 발생하여 저지투쟁
- 3월31일 : 도원동 강제철거 규탄 시민대회를 3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구청앞까지 거리시위).
- 4월5일 : 미아6동 가이주단지에 55세대가 입주하여 가이주단지 입촌식 개최.
- 4월10일 : 비닐하우스지역 주소지찾기 서명운동 발대식을 3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
- 4월12일 : 강북지부 출범식 및 부활대축일 미사를 5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
- 4월17일 : 비닐하우스 연합 준비 모임
- 4월23일 : 도원동 행정대집행
- 4월24일 : 도원동 행정대집행계속
- 4월28일 : 강제철거와 민생치안부재 규탄 철거민대회에 4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 종묘에서 명동까지 가두 시위.
- 4월28-5월3일 :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달리기 참여
- 4월30일 : 정릉4동 강제철거 사태 저지투쟁에 200여명이 참가.
- 5월3일 : 주소지찾기 서명운동 운동본부 현판식을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
- 5월15일 : 정릉4동 대책요구 성북구청앞 항의 시위에 400여명이 참석.
- 5월22일 : 적준사범처리를 위한 대책위 워크숍
- 5월31일 : 성동 지부 단오한마당
- 6월9일 : 무주택자의 날 기념 집회에 400여명이 참가하여 홍보활동(종묘에서 명동).
- 6월11일 : 전농로타리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알뜰장터.
- 6월16일 : 난곡종합시장에 강제철거 시도로 저지투쟁.
- 6월27일 : 난곡종합시장에 강제철거사태로 저지투쟁, 관악구청에 항의 농성.
- 6월28일 : 오쇠동 6주년 기념행사 겸 세입자대책요구 집회에 300여명이 참가.

### 3) 1998년 현재 회원지역 현황

#### (1) 서울 동부지부

지역	가구수	특징	비고
통일촌	약70가구	비닐하우스촌	
문정동 개미마을	95가구	비닐하우스촌	
문정동 새마을	약44가구	비닐하우스촌	
거여동	12가구	임대주택	택지개발

#### (2) 서울 서부지부

지역	가구수	특징	비고
무악동	68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도원동	40여가구	임시시설 요구중	합동재개발
도화동	20여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활동중지
난지도		임대주택 입주예정	활동중지
홍제동	150가구	임대주택 입주	

#### (3) 서울 남부지부

지역	가구수	특징	비고
오류동	62가구	임대주택 입주	합동재개발
방화동	118가구	임대주택 입주	
신림10동	100여가구	임대주택 입주	합동재개발(순환식)
봉천6동	35세대	임대주택 입주	합동재개발
노량진	57가구	임대주택 입주	합동재개발

#### (4) 서울 북부지부

지역	가구수	특징	비고
신내	75가구	임대주택 입주	택지개발
상계 한내마을	48가구	임대주택 입주	합동재개발
상계 한우리	6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미아6동	56가구	임시시설 조성중	합동재개발
미아7동	50가구	임시시설 토목공사중	합동재개발
미아1동	3가구	임시시설 요구중	합동재개발
정릉4동	19가구	임시시설 요구중	합동재개발

#### (5) 서울 성동·동대문지부

지역	가구수	특징	비고
행당2-1 송학마을	102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금호6구역 바탕고을	24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하왕1-2	6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하왕1-3	22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하왕5구역	15가구	임시시설(가이주단지)	합동재개발
이문동	8가구	임대주택 입주	합동재개발
행당1-2	43가구	임시시설 요구, 천막생활중	합동재개발

### 4) 관련 자료

- 제1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1991.2.3.
- 주거연합 정책실, 도시빈민연구소 엮음, 『교육자료집1: 삶의자리』, 1992.7.1.
- 제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3.2.28.
- 주거연합 출범식 및 입법화 촉구 전진대회, 1994.3.20.
- '집은 철거될 수 있어도 삶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주거연합 리플렛).
- 제5기 정기 대의원총회 자료집, 1995.2.27.
- '96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한국지역 주민대회', 1996.2.11.

◆ 주거연합, '무주택자의 날' 선포(중앙일보 - 1992/06/06)

무주택자들의 모임인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공동대표 제정구 민주당의원) 회원 1천여명은 6일 오후1시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김수환추기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택자의 날' 선포식 및 창립 3주년 대동제'를 개최했다.

주거연합은 선언문을 통해 "계속되는 도시개발정책과 이로 인한 강제철거로 무주택서민들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더이상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각 정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2백만가구 주택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주택서민들이 실제 입주하는 공동임대아파트건설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주거연합은 이날 '세계주거문제협의회(HIC)'와 '민중주거권쟁취아시아연합(ACHR)'에 보내는 연대메시지도 함께 채택했다.

◆ [시위] 부동산투기재산 환수촉구집회(한겨레신문 - 94/04/24)

부동산 투기자 사법처리를, 주거권실현 국민연합 촉구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회원 5백여명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부동산투기 비리 규탄 및 주거권 쟁취 전진대회'를 갖고 부동산투기 비리 혐의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부동산투기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개발지역의 수많은 철거민들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며 △투기성 토지 환수 △강제철거 금지 및 이주단지 조성 제도화 △전·월세입자 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서울 27개 재개발지구 주민들 지부 결성식후 가두행진(중앙일보 - 1994/04/25)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2-1 재개발지역 주민 7백여명과 서울시내 27개 재개발지역 주민대표들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행당2동 317 철거지역내 공터에서 '주거연합 성동.중구지부' 결성식을 갖고 용봉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결성선언문에서 \* 공공임대주택 전원입주 \* 철거 후 임시거주할 기수용시설 설치 \* 공공 임대주택내 공동작업장시설 확보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19일 철거반원들과 이 지역 주민들간에 벌어진 폭력사건과 관련,경찰의 철저한 진상규명및 최형우 내무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 주거권실현 국민대회 개최(조선일보-95/11/06)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소속 회원 7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를 열고 주택예산 증액 및 노태우씨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현 정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고 강제철거로 재개발지역 무주택 세입자들의 터전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강제철거 중단 및 세입자 주거권 보장 ▲불량주거지 개선에 관한법률안 입법 ▲주택예산 35%이상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함께▲빈민생존권을 박탈한 노씨의 즉각 구속 ▲92년 대선자금공개 ▲5,6공 부정축재 전면 재조사 ▲5.18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폭력철거 근절과 전.월세안정 촉구(조선일보-95/04/25)

전국도시민민협의회,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소속 회원 1천여명은 25일 오후 2시서울 종로 4가 종묘공원에서 '폭력철거 근절과 전.월세안정을 위한 국민대회'를 가진 뒤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국민적 관심속에 추진된 '불량주거지개선에 관한 법률안'입법과 올바른 주거정책수립 촉구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재개발지역의 폭력철거와 전.월세값 상승등으로 인한 도시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강화및 처벌규정신설 ▲주택공개념 도입및 최저 주거기준 마련 ▲ 임대주택 중심 공공정책확대 ▲재개발관련 법률 전면재정비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 5. 기타 주거권운동 관련 자료

### 1) 불량주거지개선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 ◆ '저소득주민 위한 재개발법 입법추진위' 결성(조선일보-94/03/07)

전국도시빈민 협의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10개 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 대성당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불량주거지역 재개발법입법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공동위원장에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등 3명을 선출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정책은 민간의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아래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시빈민 강제철거 반대투쟁과 올바른 토지-주택정책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을 한 데 모아 전국민적 단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으로 대중집회, 공청회 및 국회청원활동 등을 통해 ▲ 강제철거 중지 ▲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 주거권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 "누구를 위한 달동네 再開發인가" ..도시빈민協(동아일보 - 94/03/09)

지금까지 불량노후주택이 밀집한 「달동네」 지역의 재개발에 반대, 물리적인 철거저지 투쟁을 벌여온 빈민단체들이 현행 재개발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철거민협의회등 6개 빈민단체의 연합체인 전국도시빈민협의회는 7일 「지난10여년간의 재개발사업으로 대도시 산동네일대가 근사한 아파트단지로 변모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대다수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는등 부작용도 컸다」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불량주거지역 재개발법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 법개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생활실정에 맞지 않는 중 대형위주로 아파트를 신축, 80-90% 가량의 원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 또 재개발을 공공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부지원은 거의 없이 오히려 국공유지 불하 등을 통해 수익확보에만 급급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이 불명확한 점도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동질성과 생활구조를 배제한 채 건축물의 노후불량도 등 물리적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체 도시계획과의 조화가 무시되고 달동네의 공동체적 특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지대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 도시의 전반적인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도로망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유발, 주거환경만 더욱 악화시킨다는게 협회회의 설명이다.

협회측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불량주택 정비 사업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로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된 지역은 공공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합법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를 공공차원에서 계속 보유,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로 활용하고 인근 지역에 미리 집을 지어 입주시킨 뒤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도시빈민연구소 朴在天부소장(40)은 「서울시내 신규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개발사업이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클 수밖에 없다」며 「어렵사리 대안논리를 개발했으므로 국회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민] 무주택 서민 생활보장촉구 서명운동(한겨레신문 - 1994/03/10)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불량주거지역 재개발법 입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국 등 3명) 소속 회원 1백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올바른 주택정책 입법추진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날 '범국민서명운동 발족 선포문'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토지·주택정책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7일까지 1백만명 서명을 목표로 이날 탑골공원과 금호역·왕십리역 등 서울시내 15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부산과 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2) 기타 단체 신문 자료

◆ [삶의질] 한국의 주거권 단체들(한겨레신문 - 1996/07/17)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도 '인간다운 주거 보장'을 요구하는 주거운동 단체들이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0년 6월 결성된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연합)은 대표적인 주거운동단체이다. 주거연합은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 주거권의 법적 보장 △ 재벌들의 토지독점 해체와 토지 국공유화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기층대중의 실질적인 입주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철거민협의회(서철협)는 빈민지역 혹은 재개발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운동단체이다. 서울의 주거관련 도시빈민운동의 시발점은 83-85년 사이 목동단지 개발과정에서 표면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철협이 결성됐다. 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철거반대운동은 도시빈민들의 조직적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89년말 결성된 전국빈민연합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자리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89년 창립 이후 경제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주택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경실련은 △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전념할 것 △ 임대료 규제 및 주택구입자금 확대 △ 주민을 전원 재수용하는 재개발방식의 전환 △ 공정한 주거배분을 위한 임대료보조금 지급 △ 재개발구역 강제철거 중지 및 가수용 시설 설치 △ 최저주거기준 설정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자격조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아시아주거권연합은 타이 방콕에 본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연대해 주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 3)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관련 자료

#### ◆ [세계주거회의] 저소득층 최저 주거기준 마련 촉구(한겨레신문 - 1996/03/08)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김혜경)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 수립과 주거권 확립'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서준균 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주택 2백만호 건설 등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거문제는 차츰 해결되고 있으나, 달동네,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2백만~3백만가구로 예상되는 주거빈곤 가구에 대해 정부는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택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주거빈곤 해결책으로 정부가 90년대 초부터 추진하던 영구임대주택 공급도 월임대료나 관리비조차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국민주택기금지원마저 중단해 현재는 신규 건설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다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광희 변호사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을 기본 인권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세계주거회의] 6월 터키서/각국정상 참가 생활권 논의(한겨레신문 - 1996/03/08)

도시화로 빚어진 주택문제, 교통문제, 상하수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가 머리를 맞댄다.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주거회의(헤비타트2)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정주(定住) 양태를 전세계가 논의하고 행동강령을 채택하려는 모임이다.

지난 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1차 대회에 이어 20년 만에 열리는 이 회의는 유엔이 여는 급세기 마지막 범지구적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91년 리우환경회의,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주거회의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종, 종교, 정치이념, 문화, 경제 수준을 초월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거권'의 인정과 보장이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집중으로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회의가 개발과 인간행복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터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5월30일부터 열리는 예비회의와 6월3일의 본회의로 나뉘어 열리며, 각국의 정부대표 및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각국 대통령과 수상이 참가하는 정상회담이 열려 본회의에서 토의된 범지구 행동계획을 최종 채택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시민운동단체 등 비정부단체들은 5월 30일부터 14일까지 정부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합을 갖고, 각국 정부에 대한 로비 방안, 비정부단체 간 국제연대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 준비는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맡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회의가 3개월도 안 남았으나 본격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지 않고 건교부 주택정책과에 준비를 맡겨두고 있다. 또 3월1일까지 내야 하는 국가보고서도 마감 며칠 전에 국가위원회를 소집해 확정하는 등 이번 회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정부회의에 참가할 민간단체들은 경실련, 참여연대, 주거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개 단체가 모여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뉴욕에서 열린 3차 준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유엔] 2차 인간주거회의 개막(한겨레신문 - 1996/06/03)

제2회 유엔인간주거회의(HABITAT II)가 1백50여개국 대표 1만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의 회의에 들어갔다.

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회의가 있던 뒤 20년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모든 이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주거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회의는 특히 급속한 도시의 팽창에서 비롯하는 경제·사회·환경 문제가 21세기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 앞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 58억명의 약 41%인 도시 인구(24억명)는 2025년께 50억명으로 늘어나 세계인구의 3분의2에 이를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이 여성인 무주택자가 전세계적으로 1억명,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수는 무려 6억명에 이른다고 이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대책 수립·실행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던 이전의 유엔회의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풀뿌리 활동가 및 비정부기구 대표 5천여명이 정부 대표와 나란히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이 비정부기구들과 정부의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소재 다국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픈 텍스트'는 동반자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미 1백20여개국에서 재원 마련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은 점도 이번 회의가 생산적인 결과를 낼 것이란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모

형으로 남미 코스타리카의 대나무와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터키 정부는 50㎡ 크기로 짓는 데 5천달러밖에 들지 않는 데다 지진에도 잘 견디는 이 집을 이스탄불에서 대안의 주택으로 짓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원 문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여전히 심각한 견해차는 회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주거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 사이는 물론 각국 정부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거회의 주최측 관리들에 따르면 특히 서방국들은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할 경우 자국민들의 집단적 소송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터키를 회의 개최지로 정한 유엔에 대해 일고 있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이번 회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남동부지방의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에 대해 군사공격을 통해 마을 3천여곳을 강제 소개시킨 터키 정부에게 이번 회의를 열게 한 것은 유엔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터키 정부의 방해 속에 '대안의 주거회의'를 열었다.

◆ [유엔거주회의] 주거권 범위싸고 각국 참여대립(한겨레신문 - 1996/06/04)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회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II) 첫날인 3일 '주거권'을 비롯해 재원마련 방안 등을 둘러싸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들 사이에 큰 이견을 보였다.

◇...파비오 히랄도 콜롬비아 대표는 비동맹국가들을 대표한 연설에서 "주거권을 하나의 독자적 인권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공공사업장관은 "주거권은 모든 이가 안전·평화·존엄을 누리며 살 권리로 해석돼야 한다"며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의 마이클 스테그먼 주택·도시개발 차관은 "주거권은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규정한 기존 인권개념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반대 태도를 보였다. 미국 등은 주거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할 경우 전세계 무주택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책임을 맡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이날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실천사례"를 찾기 위해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대회를 열었으며, 최우수 사례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유엔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부문 모형 및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모범적인 예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터키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수 쿠르드족 인권 운동가들은 회의 참가를 거부당한 뒤 회의장 근처에서 유럽의회 녹색그룹의 후원 아래 독자적인 대회를 갖고 터키 정부의 탄압으로 쿠르드족 1백여만명이 집을 잃고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를 2004년 올림픽 유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터키 정부는 경찰 2만7천여명을 동원해 회의장 주변을 경계하고 반정부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을 단속하는 등 치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날 친정부 이슬람 단체가 입주해 있는 회의장 근처의 한 건물에서 테러로 보이는 강력한 폭탄이 터져 터키당국을 긴장시켰다. 이날 폭발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스탄불 / 외신종합

◆ [유엔거주회의] 정상급 대표 20명 불과 "맥빠진 대회" 성토(한겨레신문 - 1996/06/05)

터키 이스탄불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II) 이틀째 회의가 열린 4일 선·후진국 사이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주거권의 인권 인정' 문제에 대한 절충안이 토의됐으며 새로운 주거 모형이 제시됐다.

◇...아와데시 시나 인도 대표는 이날 "주거권을 새로운 독자적 인권 항목으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는 대신 정부가 국민의 주거를 보장할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자"며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이클 스티그만 미국 대표는 미국내에서 주거권보장에 관한 집단소송 사태를 우려해 "이미 '세계인권선언'에 주거권을 포괄한 권리항목이 들어있다"며 "주거권을 굳이 인권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영국의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는 태양열을 냉난방과 조명을 위한 주동력원으로 쓰는 '태양열 건축'이 21세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로저스는 최근 프랑스 지롱드주 보르도에서 신축건물에 물을 냉매로 사용한 냉방장치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키쿠다케 키요노리 일본거주협회 회장은 일본이 지난 20년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일궈낸 해상인공도시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바다가 인류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 모인 이들은 21세기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참여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서지 도미첼리 국제도시계획전문가협회 회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도시개발 방법"이라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삶은 지금의 우리가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담에는 1백18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던 반면 이번 주거회의에는 행사 마지막날까지 참석예정인 정상급 대표가 15-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각국 정상들이 주거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참가자들의 성토가 높았다. 이밖에 90

년을 기준으로 각국 정부가 예산의 15%와 6.4%를 각각 교육과 보건에 쓰는 데 비해 주거에는 3.32%만 지출하고 있다는 유엔 공식통계가 발표돼 주거문제에 대한 각국의 무관심에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스탄불 / 외신종합

◆ [UN] 인간주거회의 이모저모(한겨레신문 - 1996/06/07)

터키 이스탄불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II)에서는 나흘째인 6일에도 '주거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선언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배춘 및 도시범죄 급증 등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샤프가트 카카크렐 거주회의 결의문 협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주거권을 둘러싼 토론 뒤 가진 회견에서 "미국쪽이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면서 8일까지 결의문 초안 작성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스테그먼 미국 대표단장은 "(주거권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은 법적인 틀"이라며 "우리는 오늘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주거권 문제는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계아동기금(유니세프)은 2025년께 개도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10명 가운데 6명이 도시 태생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마다 5백만-6백만명의 어린이가 열악한 주거 및 보건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현상화에 대한 시급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아동기금은 해마다 5-15살 어린 여성들이 새로 매춘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남성 위주 사회질서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 소속 인권운동가 5백여명은 이날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갈라타 다리를 건너 이스탄불 상업중심가에 있는 회의장으로 가려 했으나 수백명의 무장한 터키 경찰이 막자 장시간 토론 끝에 자진해산했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타이·인도·필리핀·브라질·멕시코 등 아시아·중남미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주로 참가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의 대표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기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멕시코 소재 범죄자 재활모임인 '도시의 용기'는 도시지역을 떠돌며 폭력을 일삼고 마약에 찌들었던 이전의 범죄자 13명의 인생수기를 발표해 도시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스탄불 / 외신종합

◆ [유엔거주회의] 이모저모(한겨레신문 - 1996/06/11)

주거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선언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결의문 초안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II)는 회의 시작 엿새째인 9일 환경상 시상식을 가졌다.

◇...회의는 7일 최대쟁점이던 주거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초안은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주거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는 대신에 "모든 이를 위한 주거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목표"라고 규정했다. 초안은 무주택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차별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책임을 우려해 사적 기업·비정부기구·국제기구 등에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회의는 9일 나이지리아 군사정부가 지난해 처형한 환경·인권운동가 켄 사로위와 등 환경보호를 위해 애쓴 21명에게 환경상을 주었다. 켄 사로위와를 대신해 상을 받은 딸 지나 사로위와(20)는 "세계에는 부패한 정부 지배하의 힘없는 소수종족들을 이용하는 많은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켄 사로위와는 다국적 석유기업 '셸'의 환경파괴에 맞서 싸웠다. 이밖에 수상자로는 한국의 이완(13)군이 포함돼 있는데, 이군은 집 근처 개울이 오염돼 개구리가 사라지는 것에 자극받아 환경관련 글 18편을 묶어 책을 냈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러시아 군수산업을 고발한 기술자 출신의 타티나 표도로프나 스테파넨코, 쿠르드족과의 내전으로 황폐한 지역에 나무 1만여그루를 심은 터키의 파티 일마즈(17) 등도 상을 받았다.

◇...회의에 참가중인 대표들은 주거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커트 시모크 볼티모어 시장은 "정책수립은 중앙정부가 해야 하나, 이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방정부"라며 탈중앙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시에라리온·남아공 등 개도국 도시의 시장들은 "문제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탄불 / 외신종합

◆ [유엔거주회의] 비정부기구와 개도국 '거주권' 등 쟁점 불만(한겨레신문 - 1996/06/12)

터키 이스탄불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II)는 10일 의제 및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비정부기구 및 일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주거권·채권 등 주요 쟁점들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회의가 연장될 우려가 나오는 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부기구 포럼에 참석중인 인도 출신의 미나르 펄름 '인권코커스' 공동의장은 이날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의제 및 결의안의) 용어를 둘러싼 심한 논란이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일종의 심사위원회인 '제2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이날도 심사내용을 검토할 기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자는 이전의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 및 의견권을 얻은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회의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비정부기구 포럼을 열면서 정부 대표들을 압박하고 있다. 펄름 의장의 연설 직전 왈리 은도우 거주회의 사무총장은 거주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50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부 개도국 대표들은 90년 리우 환경회의, 94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등 이전 유엔 회의들에서 합의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까지도 문제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티에리 롬멜 유럽연합(EU) 대표단장이 밝혔다. 롬멜 단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발전·사회발전·환경보호'를 포함한다는 이전 유엔회의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롬멜 단장은 또 개도국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재원 각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바란다고 밝히고, 이런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회의가 예정대로 끝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탄불 / 외신종합

◆ [유엔거주회의] 도시문제 해결 인류공동과제(한겨레신문 - 1996/06/13)

폐막을 이틀 앞둔 12일 터키 이스탄불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II)에서 각국 정상들의 본회의 연설이 이어진 가운데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비정부기구(NGO)의 본회의 참석을 인정하는 등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최국인 터키의 슬레이만 데미렐 대통령은 주거권의 독자적 기본권 인정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선-후진국간 의견 대립을 의식한 듯 "도시문제에 있어선 모든 나라가 같은 편이며 해결 여하에 따라 모두가 승자가 되거나 모두가 패자가 된다"며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파키스탄의 수도 카라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도시는 과밀한 인구와 이에 따른 소음·먼지·범죄로 신음하고 있다"며 "농촌인구의 맹목적인 도시유입으로 인한 과밀화를 막기 위해 농촌지역에 전기·전화·가스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조속히 제공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는 "최근 미국이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기부금을 95년의 1백16만달러에서 52만달러로 절반이나 줄였다"면서 지원금 삭감 등 선진국들의 무성성한 태도를 "북아메리카병"이라고 비꼬며 우려를 나타냈다.

◇...바티칸에서 파견된 조아킨 나바로 발스 교황청 대표는 "에초 결의문 초안에는 2군데에만 있었던 여성의 출산권이나 성생활의 권리 등 성에 대한 언급을 미국 대표가 지난 4일동안 4군데나 추가시켜 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지역적 문제를 자꾸 들먹여 회의진행을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군사협정 체결 문제로 터키를 방문중인 에제르 와이즈만 이스라엘 대통령은 최근 아랍국가들이 대아랍 강경파인 벤야민 네탄야후 새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공동전략을 모색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에 대해 "새정부 아래서도 평화협상은 틀림없이 계속 진전돼 나갈 것"이라면서 아랍국가들의 예민한 반응을 "정당치 못한 것"이라고 비난해, 거주회의장이 난데없이 국제분쟁을 둘러싼 정치무대로 돌변하기도 했다. 이스탄불 / 외신종합

## 6. 철거 관련 희생자 명단

### 1) 故 이순복씨(여, 당시 37세)

1986년 4월2일 암사동에서 천막생활 중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

### 2) 故 남성열씨(남, 31세)

1986년 5월16일에 상계동 세입자였던 남성열씨는 어용세입자 단체 총무인 이대복의 부정을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단구타 당하여 온몸에 타박상, 갈비뼈 부상을 입었으며, 대소변 보기도 불편할 정도로 몸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후 이대복은 폭력사실이 드러날까봐 남성열씨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남성열씨는 옷가지만 챙긴 채 6월1일 집을 나갔으며 이후 소식이 없다가 6월6일 경찰의 사망통고를 통해 소식을 알 수 있었다. 경찰에서는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문시되는 것은 경찰이 시체 발견 장소를 불암산이라고만 하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체 확인시에도 얼굴만 보여주고 다른 부위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상계동 세입자대책위원회 활동일지에서 인용).

### 3) 故 이치호씨(남, 59세)

1986년 6월26일 이치호씨는 상계동의 철거 대상 가옥 그늘에 있었다. 철거깡패들은 이치호씨가 있던 건물을 지붕부터 부수기 시작했으며, 밑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는 옆집 아줌마의 말도 개의치 않았다. 그 과정에서 벽이 무너지면서 이치호씨는 깔리게 되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깨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으나 철거반원들은 옆집으로 옮겨가 작업을 계속했다. 주민들은 그를 경희의료원으로 옮겨 입원시켰으나 추진위측에서 환자를 동부의료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무의탁자라는 이유로 시립병원으로 옮겨야 했으며, 시립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하였다.

### 4) 故 최홍숙씨(여, 33세)

신당동 철거민이었던 故 최홍숙씨가 화를 당한 것은 1986년 12월2일이었다. 이미 신당동 재개발구역은 10월31일에 철거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철거로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이 비닐천막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이에 12월2일 철거반원들이 이 비닐천막마저 철거하려고 시도하였고, 신당동 철거민들은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홍숙씨는 무자비한 철거폭력에 항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들이 지키려 했던 故 최홍숙씨의 시신을 사인도 모르는 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리고 12월4일 오전에 경찰측은 갑자기 최홍숙씨의 시신을 매장하고 말았다. 자녀들이 사망한 최홍숙씨의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5) 故 박정자씨(여, 63세)

1986년 11월25일 상계동의 계속되는 철거와 천막생활로 인한 건강악화로 사망.

6) 故 오동근 어린이(남, 9세)

오동근 어린이가 불의의 화를 당한 것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1987년 5월4일이였다. 그 때는 많은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반원들에 의해 상계동에서 쫓겨나 명동성당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9세로 국민학교 2학년이던 오동근군은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예전에 살던 상계동의 한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동근군과 친구들이 놀고 있던 주변의 철거가옥 담벽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돌더미에 깔리게 되었다. 오동근군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친구들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더욱 상계동 철거민들을 분노케하였던 것은 죽은 오동근군을 안치한 서울기독병원에 오동근군이 죽은 지 이틀만에 경찰병력을 동원, 시신을 강제로 화장시켜 버린 것이다.

7) 故 이수환(남, 52세)

1987년 5월8일 광명시 철산동 철거로 인한 생계곤란을 비판하다 자살.

8) 故 이연옥(여, 74세)

1987년 5월15일 서초동 강제철거 비판 자살.

9) 故 이종문(남)

1987년 6월9일 석촌동 자신의 집과 여동생, 누나집이 계속 강제철거되자 심한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한 끝에 사망.

10) 故 이근섭(남, 67세)

1987년 9월7일 신당동 재개발에 반대해 오는 도중 연못에 빠져 숨짐. 경찰은 시신을 강제로 화장시킴.

11) 故 지삼용(남, 72세)

1987년 10월31일 신당동 강제철거 비판 자살.

12) 故 임채의 어린이(남, 5세)

임채의군은 사당2동 철거민 임우택씨의 3남이였다. 당시 5세였던 임채의군은 1987년 12월27일 오후 2시경 주일예배에 참석차 사당2동 산17번지에 위치한 남성교회에 갔었다. 예배시간에 여유가 있어 교회 앞에 위치한 서울 시립 새마을유아원 부근에서 다른 애들과 어울려 놀던 중 유아원 담장이 무너져 현장에서 압사하고 말았다.

무너진 유아원의 담장은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의 뒷담이었으며, 결국 구청이 철거과정에서 철거한 건물의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생긴 것이다.

13) 故이창옥(남, 73세)

1988년 5월3일 양평동 강제철거 이후 오랜 천막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

14) 故 황경호 군(남, 2개월)

1989년 1월11일 신정2동 295번지 세입자 황인출씨 집에 갑자기 강제철거가 들어왔다. 가옥주 하오석씨의 5-6명과 철거장패 4-5명이 아무런 사전통고없이 철거막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황인출씨 집에 들이닥친 것이다. 이들은 대문을 열어 제치고 막지를 붙이려고 창문을 넘어오다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다. 이 소란에 잠자고 있던 황경호군(당시 2개월 15일)이 놀라 울음을 터트렸다.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강서서 정보과 형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황군은 심한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몸에서는 열이 심하게 났다. 황군의 어머니는 목동 14단지에 있는 심소아과를 찾았으나, 의사는 놀라면 누구나 일으키는 경기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경호군의 울음과 신열은 그칠 줄 몰랐다. 1월13일엔 영등포



소아과를 찾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 하지만 이미 그 때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였다. 다음날 오후 4시경 소생가능성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결국 산소호흡기를 떼낸 황경호군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15) 故 정상률(남)

정상률씨가 화를 당한 것은 1989년 2월18일 오후 4시경이었다. 그 때 돈암동 세대위 사무실에 있었던 세대위 부회장 정씨는 같은 동네 세입자였던 권영춘씨(여, 당시 31세)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세들어 사는 집의 가옥주가 행패를 부리니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세입자 한 명과 황급히 권씨의 집에 달려 가보니, 가옥주 신광선씨(당시 53세)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인척이라는 두 사람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자 정상률씨가 신씨를 만류하려고 대화를 유도했으나 신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식칼을 빼들고 정씨의 가슴을 찔렀던 것이다. 그리고 정씨는 얼마가지 않아 사망하였다.

16) 故 강병채씨(남)

1989년 5월21일 일산신도시 계획에 반대하며 음독자살.

17) 故 이해영 어린이(여, 4세)

이해영어린이는 사당2동 철거민 이명식씨의 딸로 당시 4살이었다. 이해영양은 사고 발생일인 1989년 6월20일 오후 8시경 철거촌에서 놀고 있었다. 이양은 재개발사업 이후 철거되었지만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철거가옥 위에서 놀다가 거꾸로 떨어져 정수리 부분이 함몰되고 뇌출혈 혼수상태에 빠졌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치료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의식 불명인 채로 성모병원에서 집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고 또다시 서대문 적십자병원으로 옮겨다녔으나 결국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22일 오후 21시경 사망하고 말았다.

18) 故 박용술(남, 54세)

1989년 6월24일 신도시개발을 비판하여 목매 자살<sup>1)</sup>

1) 동아일보, 1989.6.25일자; 일산·분당 신도시개발 반대투쟁지원공동대책위원회, 『신도시개발반대투쟁

19) 故 한지영(남, 31세)

1989년 9월5일 신도시 투쟁에 앞장서다 “내가 죽어 신도시가 백지화된다면!”이라는 말과 함께 아들을 부탁하고 목매 자살<sup>2)</sup>

20) 故 이영길씨(남)

부산 문현1동 철거민으로 세대위 행동대장.

21) 故 김효순씨(여)

1990년 12월9일, 노량진2동에서 세입자 김효순씨가 강제철거를 비판 목매달아 자살.

22) 故 송봉용씨(남)

1990년 12월27일, 노량진 재개발지구, 새마을 취로사업 반장인 송봉용씨가 빨리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고민하다 쓰러져 끝내 사망.

23) 故 유성규씨(남, 49세)

1991년 4월, 수서택지개발지구에서 유성규씨가 철거계고장이 지역에 돌려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

24) 故 이시현씨(남, 46세)

1991년 5월11일, 월계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주거문제를 비판해오던 이시현씨가 목매어 자살. 생보자용 영구임대주택이 주어진다는 통보를 받고도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포기하게 되고 앞으로의 막대한 주거대책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음.

25) 故 이종화씨(남, 39세)

1991년 5월15일, 노량진 재개발지구에서 보증금 50만원에 4만원씩의 월세를 내고 세자

자료집』, 1989.7  
2) 일산 송포신도시 개발 반대투쟁위원회, ‘계속되는 절규 속의 비판자살을 우리는 경악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1989.10.4, 공간환경연구회 일산신도시 연구특위, 『신도시개발반대투쟁자료집(1)』, 1990.1

녀를 돌보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이종화씨가 39세로 자살. 사건에 앞서 가옥주는 5개월전부터 전기와 수도를 끊고 이주를 종용하였고, 5월10일에는 조합측과 가옥주가 뚜렷한 주거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철거를 강요였으며 더구나 가옥주는 재산세 까지도 전부 납부하라고 하였다. 이에 세자녀와 더불어 극히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던 상황에서 앞으로의 생활을 고민하며 5일간 식음을 전폐한 채 괴로움에 시달려왔음.

## 26) 故 김선호씨(남, 32)

김선호씨는 부산 장림1동 철거민 대책위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교육부장, 총무로 활동함. 장림1지구는 산과 바다의 갯벌이 맞붙는 접점을 따라 주민들이 집을 짓고 길을 내면서 형성되었음. 하지만 1985년 부산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마을과 시의 매립지가 맞붙게 되었고 이 지역을 90년 호승산업주식회사가 부산시에서 매입한 뒤 땅 값이 엄청나게 치솟자 강제철거의 위협이 시작됨. 그러나 주민들은 달리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무대책 강제철거를 반대했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구청의 대답을 받아내기도 함(1992년 11월2일). 하지만 대답을 받은 다음 날 아침 7시, 갑자기 사복형사, 전경, 철거반원들이 들어와 강제철거를 시작. 이 과정에서 김선호씨가 집단폭행으로 사망. 경찰은 부검을 통해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치사로 규정하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려 함.

## 27) 故 신연숙씨(여, 38세)

1996년 2월5일 새벽 5시경 공권력과 철거장패 약250여명이 지역에 들이닥쳤다. 이에 맞서 강제철거를 막아내려는 철거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철거장패들과 싸움 도중 철탑에 불이 붙고 이 와중에 불길을 피하지 못한 주민과 학생 1인이 투신, 세아이의 어머니기도 한 신연숙씨는 끝내 사망하였다.

## 28) 故 민병일씨(남, 38세)

1958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민병일씨는 95년 9월28일에 경기도 용인 구갈철거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하였다. 밤에는 노점상으로 생계를 잇고, 낮에는 구갈철대위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97년 2월2일 단속으로 빼앗긴 노점장사도구를 찾으러 신갈파출소를 방문하였다. 이후 민병일씨의 부인은 “민병일씨가 파출소 앞에서 쓰러져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신갈파출소에서 받는다. 이후 영동정형외과로 후송되었다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남수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남수원병원에서 뇌사로 판정되었고, 의사는 “머리를 맞은 것 같다”고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여 구갈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신갈파출소를 방문하자 파출소장이 “미안하다. 우리 직원들과 실갱이를 벌이다 떠밀렸다. 그 직원은 용인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라고 하였다. 민병일씨는 이후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월15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 29) 故 박순덕씨(여, 35세)

196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박순덕씨는 95년 2월경에 진농3동 철거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하였다. 이후 진농3동에는 철거민들이 철탑(속칭 골리앗)을 설치하였고, 박순덕씨는 골리앗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97년 7월25일에 사건이 발생하였다. 25일 아침부터 골리앗 주위로 물려들기 시작한 선경건설의 의뢰를 받은 적준용역 소속 300여명이 공권력 600명의 비호를 받으며 골리앗에 접근하였고, 이들은 골리앗 안으로 기름을 묻힌 타이어를 집어 던진 후 불을 질렀다. 골리앗이 화염에 휩싸이자 골리앗 안에 있던 박순덕씨를 비롯한 10여명이 18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뛰어내린 주민들을 용역직원들이 집단 구타하였

## 7. 철거과정에서의 폭력문제에 대한 자료

다음은 대표적인 철거용역 전문회사인 적준용역(현재 다원건설로 개칭)이 재개발지역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해,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sup>3)</sup>가 발행한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의 약 절반 정도 지역에서 철거업무를 맡고 있는 적준용역은 일종의 ‘철거폭력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적준용역이 1991년부터 8년 동안 각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적준 외에도 여러 군소업체에 의한 크고 작은 폭력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 1991년

▶ 9월10일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400여명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폭행, 이정숙씨(여,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要) 외 주민 4명 부상.

▶ 10월19일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수명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주민 폭행, 김분달씨(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입음) 외 주민 4명 부상, 폭행과 폭언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부녀자의 옷을 벗기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추행.

### 1992년

▶ 1월 8일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500여명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폭행. 주민 이양림씨 외 대다수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그 중 8명 실신하는 중상).

▶ 1월15일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재개발지구

3) (참여단체) 도시빈민여성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아시아강제철거감시단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 천주교도시빈민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참관) 전국철거민연합 /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철거반원 10여명 주거침입, 폭행. 주민 원종대씨 집에 침입, 주먹과 발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

▶ 1월17일 10:00경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여명 폭행, 출근하던 주민 고양재씨 집단 폭행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

▶ 3월26일 10:30 - 동작구 사당동 94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0여명 구청 허락없이 가옥 3채 불법 철거. 박종균씨(69. 사업) 등 가옥주 3명과 세입자 10여명 집단폭행.

▶ 4월3일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400여명 포크레인 8대 동원 강제철거 및 집단폭행. 김형기(서강대 2년) 실신, 박정선씨 누굴 골절상으로 4주간의 치료 요, 성명미상자(목동 14단지 테니스코치) 뇌손상.

▶ 7월1일 2:30 - 양천구 신정 2동 6-2 재개발지구 부근 안양천변 도로

승용차를 몰고가던 마관신씨(29.악사.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철거반원들에게 집단구타당함 전치 2주의 상처.

▶ 11월3일 07:15 - 사하구 장림1동 보덕포마을

철거반원과 전경 100여명 무허가 건물 24가구 강제철거. 주민 김선호씨(32. 용접공) 집단폭행으로 사망, 원명복씨(52) 등 4명 부상 등 10여명 사상.

1993년

▶ 9월14일 08:00 - 구로구 오류동 14 오류 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0여명 강제 철거 시도. 주민 10여 명 부상.

1994년

▶ 1월12일 - 양천구 신정동 78-1 신정 5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마을에 난입. 항의하는 임산부 유남숙씨 등 주민 3명 집단 폭행.

▶ 1월24일 10:00 - 성동구 금호동 1가 1080 금호 6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마을 난입으로 주민 2명 부상.

▶ 1월27일 - 성동구 금호동 1가 1080 금호 6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중지 요구 조합 농성 중 철거반원 30여 명 난입으로 주민 15명 부상.

▶ 3월7일 - 관악구 봉천동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20여명 강제철거 시도로 주민 4명 부상(주민 1명: 전치 4주의 중상).

▶ 3월24일 - 관악구 봉천동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10여명 난입으로 주민 6명 부상

▶ 3월24일 09:00 -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3, 4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2명 포크레인으로 강제 철거 및 폭행. 주민 김맹임씨(58. 여) 외 5명의 여성 주민들 부상당함.

▶ 4월19일 - 성동구 행당 2동 하왕 2-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20여명 주민 집단폭행으로 주민 10여명 부상. 철거반원들 만취상태에서 팬티 바람으로 옥실을 퍼부으며 부녀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사타구니를 잡아 뜯는 등의 성추행 자행. 홍모씨(여, 34세) 철거반원에게 성추행 당해 정신착란 증세 보임.

▶ 8월24일 15:30경 - 은평구 수색동 1 수색 2-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김양만, 이중현, 박성문, 최성운 외 수명 주거침입 및 집단폭행. 정학기씨(37세)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상 등 상해.

▶ 10월21~22일 - 관악구 봉천동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70여명 난입으로 주민 20여명 부상(3명은 중상: 부녀자 1명 국부를 발로 밟는 성추행 발생-장기 치료 받음).

▶ 10월22일 - 양천구 신정동 78-1 신정 5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400여명 강제철거. 임신 5개월된 임산모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주민 25명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아주머니들에게 강제로 똥물을 퍼붓는 등의 폭행.

▶ 12월28일 - 성동구 금호동 1가 1080 금호 6 재개발지구 내 상가공장

상가공장 보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강제철거 및 주민 폭행. 주민 김필연씨(64. 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은희령씨(35. 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94년 12월부터 95년 2월 - 노원구 중계본동 37번지 광석마을

철거반원 3차례 강제철거로 주민 30여명 부상(전치 2~6주).

▶ 94년부터 95년 - 옥수 8 재개발지구

10여 차례 폭력사태로 주민 20여명 부상.

1995년

▶ 2월16일 - 관악구 봉천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100여명 강제철거로 주민 10여 명 부상.

▶ 2월21일 - 성동구 왕십리 1039 하왕 1-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5명 손도끼, 각목 무장 지역 난입으로 주민 다수 폭행, 주부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추행.

▶ 3월20일 - 관악구 봉천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상주하며 펜티차림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위협함.

▶ 4월25일 06:20경 - 관악구 봉천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100여명 마을에 난입. ① 철거반원 봉천6동 상가공장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 침입하여 사무실 집기 파손 ② 사무실 2층에서 자고 있는 장순자씨(32, 여)의 방안으로 침입, 상해 입히고, 초교생 자녀 3명을 계단밑으로 던져버린 후 강제철거, 유리창, 텔레비전, 냉장고 등 파손 ③ 김인제씨(46, 남)를 집단폭행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입힘 ④ 철거반원 50여 명 철거대책위 위원장 주부 전철순씨(40, 여)를 집단폭행.

▶ 5월10일 - 관악구 봉천 2동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폭행으로 주민 11명 부상

▶ 6월7일 23:00 - 노원구 중계동 440 중계 4-2 재개발지구

술에 취한 철거반원 3명이 마을내 교회목사 부인 등 3명의 집에 들어가 발로 차며 행패, 여성 주민 성추행.

▶ 10월25일 16:30 - 종로구 무악동 46 무악 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조합간부 등 70여 명 조합사무실 난입 50분 여 폭행. 주민 60여명 사무실 감금,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던지는 등 폭행. 여성 주민 1명 철거반원들 10여명에 성추행 당함.

▶ 95년부터 96년 - 성동구 금호동 금호 6 재개발지구

6차례 폭력철거 사태로 주민 20여명 부상.

1996년

▶ 96년 - 노원구 상계동 95 상계 3-2 재개발지구

폭행으로 주민 4명 중상.

▶ 96년 - 서대문구 홍제동 재개발지구

10여 차례 폭력사태 발생, 주민 1명 구속.

▶ 96년 - 성북구 종암동 105 종암 재개발지구

5차례 폭력사태로 주민 10여명 부상, 철거반원 동네건달들 조직화 가담시킴.

▶ 1월10일 08:00~12:00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300여명 마을 봉쇄후 강제 철거 시도.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 무차별 폭행, 주민 10여명 부상(이주 5~6명 인근병원에 긴급 후송 응급조치), 협박과 성희롱 자행.

▶ 3월27일 - 강북구 미아6동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50여명 세대위 사무실 난입 폭행으로 주민 5명 부상.

▶ 4월3일, 4월20일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200여명 강제 철거.

▶ 4월26일 - 강북구 미아6동 재개발지구

현장 소장 나채복 등 철거반원 50여명 강제철거 집단폭행으로 김모씨(41, 노점상) 등 세입자 7명 부상(전치 2~4주).

▶ 9월19일 - 강북구 미아6동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200여명 강제철거 시도.

▶ 10월10일 12:00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여명 난입 집기 파손 등 난동, 공갈 협박으로 이사갈 것을 강요.

주민 다수 폭행, 여성들 성희롱.

▶ 10월14일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20여명 함마, 각목 등으로 무장 2시간 마을 주민 폭행.

주민 다수 부상, 적준 임하영 소장 옷을 벗고 여성들에 성폭언으로 위협.

▶ 10월14일 13:30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적준 전무 김영배, 정재용, 양재철, 김산식 등 철거반원 15명 오합마, 각목 등으로 무장 2시간 동안 마을 주민 폭행, 81세 노인을 떠밀어 실신시키고, 여성 다수에게 성희롱, 이체경

씨 부상.

▶ 10월15일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양재철 등 철거반원 10여명 오합마, 각목으로 무장 난입. 하루종일 주민들 집안에 강금, 마을 장악, 난동 폭행, 협박, 공갈.

▶ 10월16일 09:00~14:00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적준 전무 김영배 지휘 아래 정용팔, 김산식, 임화영(행당 1-2지역 용역소장), 박산성(미아7동 용역소장), 양재철, 문상태(적준 부장) 등 철거반원 40여명 난입, 주민들 협박, 폭행.

▶ 10월27일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20여명 난입, 주민 4명 폭행(세대위 회원 이종호씨가 살고 있던 빈집 철거 강행, 채정자, 김복숙, 이금희씨, 김학진씨 등 주민 폭행 당함).

▶ 10월29일 07:00~ - 강북구 미아동 852 미아 1-1 재개발지구

적준+(주)거산 안전관리용역+(주)인덕 씨티씨용역 철거반원 750여명 강제철거 시도. 주민 20여명에게 무차별 폭언, 폭행→주민 김춘자씨(54, 여) 실신 등 4~5명 부상. 주민대표 송영기씨 (주)적준 소속 박상선 소장, 김영배 전무 등 (주)적준 간부들의 직접 지시 및 폭력에 의해 주민들 부상당하고, 성추행 당함.

▶ 11월 - 은평구 수색 재개발지구

6차례 폭력사태로 주민 20여명 부상.

▶ 12월2일, 9일, 18일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수차례 강제철거, 폭행으로 주민 다수 폭행 당함.

▶ 12월18일 - 양천구 신정동 126 신정 6-1 합동 재개발지구

원인 모를 화재 발생 83세대 가수용시설 전소.

▶ 12월26일 09:00 - 동대문구 이문 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여명 난입 집단폭행, 김학진, 남광우씨 집의 살림살이를 들어내고 지붕을 무너뜨리고 벽을 허무는 난동으로 주민다수 부상, 이외에도 20여 차례 철거반원 집단폭행으로 주민 10여명 폭행당함.

1997년

▶ 3월16일 - 강북구 미아동 852 미아 1-1 재개발지구

적준+(주)거산 안전관리용역+(주)인덕 씨티씨용역 철거반원 300여명 강제철거 시도, 주민 5~6명 부상, 이후 원인 모를 화재 100여건 발생.

▶ 4월 - 영등포구 신길동 233 신길 2-3 재개발지구

주민 모임 중 철거반원 난입으로 주민 다수 부상.

▶ 4월3일 08:00 - 강북구 미아동 852 미아 1-1 재개발지구

적준+거산+인덕 철거반원 마을 봉쇄 후 강제철거. 만삭의 임산부 노경순(여, 35)씨 폭력 배 7~8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실신.

▶ 4월3일 07:00~17:00 - 동대문구 이문동 177 이문 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0여명, 포크레인, 전경차 3대, 소방차, 구급차가 동원되어 살고 있는 집의 짐들을 들어내고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는 강제철거 자행. 사람이 살고 있는 집 4채 파괴, 살림살이 중량천 뚝방에 방치, 주민들 천막 임시 거주.

▶ 4월3일 18:00~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300여명 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 낡은 담장 붕괴, 주민 20여명 폭행으로 부상.

▶ 4월5일 - 영등포구 신길동 233 신길 2-3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주민 집단폭행으로 박형근씨(남, 37)脛장 및 장기 파열로 입원 치료.

▶ 4월8일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적준 행당 1-2지구 소장 임화영 등 철거반원 4명 과도로 주민 위협 폭행. 주민 2명 부상.

▶ 4월7일~5월27일 - 영등포구 신길동 233 신길 2-3 재개발지구

10여 차례 방화의혹 화재 발생.

▶ 4월18일 10:00 - 동대문구 이문동 177 이문 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4채와 임시 거주시설 천막 5개마저 강제철거로 8세대 주민 20여명 중량천 뚝방 천막생활.

▶ 4월29일 09:00경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세입자 60여명 모임중 정수종 지휘 아래 철거반원 50여 명 난입 무차별 폭행.

서철연 의장 이태교씨, 박기호씨(행당 1-1지구 철대위 위원장), 김홍배씨(도원동 철대위 조직부장)등 주민 20여명 부상.

▶ 5월9일 - 노원구 양돈마을 재개발지구

행정대집행으로 33세대 강제 철거. 주민 10여명 중량천 뚝방 천막 설치.

- ▶ 5월17일 - 관악구 봉천동 산 81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철거반원 폭행으로 주민 4명 부상.
- ▶ 5월20일 08:50~ - 강북구 미아동 852 미아 1-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80여명 강제철거 시도로 주민 정호성씨(남, 40) 중상(전치 4주의 부상).
- ▶ 5월28일 08:00~ - 강북구 미아동 852 미아 1-1 재개발지구  
적준+(주)거산 안전관리용역+(주)인덕 씨티씨용역 철거반원 400여명 포크레인 8대 강제 철거 시도로 주민 5~6명 부상, 이후 3개 용역사 철거반원 20여명 상주 상습 폭행, 방화로 100여 차례의 화재 발생.
- ▶ 6월 - 동대문구 전농 1동 645 답십리 6-4 재개발지구  
이전 및 보상문제로 철거대책위 구성 활동중 철거반원 집단폭행. 철거민 이복순씨 등 5명 집단폭행당함.
- ▶ 6월10일 11:40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장공수(적준 소장), 김성진 등 7명, 철대위 플랭카드 내용을 이유로 시비. 주민 수명 부상, 정정남(여, 40)씨 등 부녀자 2인 성추행.
- ▶ 7월25일 08:00~18:40 - 동대문구 전농 3동 재개발지구  
공권력 300여명+적준토건(주) 철거반원 300여명 강제철거. 농성자 10명에게 돌과 화염병 투척으로 상해 가함. 주민 김용인씨 다리에 나만형씨 어깨와 복부, 김태영씨 얼굴에 상해. 저항하는 망루 농성중인 철거민 해산을 위해 이불, 페타이어 등을 놓고 유류를 이용하여 방화(일명 너구리작전 수행) → 주민들 18m 아래로 투신. 지상으로 뛰어내리던 중 주부 박순덕(35, 여)씨 사망. 그의 주민 다수 부상당함.
- ▶ 7월경 전후 - 노원구 상계 3-1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5차례 폭력사태 자행.
- ▶ 9월1일, 2일, 5일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계속된 강제철거로 주민 10여명 부상.
- ▶ 9월30일 08:50경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정보과 형사들과 백골단 300여명+철거반원 100여명+가옥명도 고용원 500여명 극빈 세입자 가옥 강제철거(성동구청 주택계량과 직원 동행). 저항하는 30여명 철거민에게 돌과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로 심한 부상. 약 2시간여 동안의 폭력사태로 27세대 110여명의 집과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파손됨. 어린이들의 책마저 땅에 묻힘. 주민 10여명 부상당하고, 여성

주민들 성추행 당함.

- ▶ 11월, 12월 -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지구  
카톨릭신문사 서상덕기자 취재중 폭행(11월), 월간 '말' 김소희 기자를 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 행사.
- ▶ 12월16일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공가물 철거 과정에서 살고 있는 집마저 철거에 항의 중 철거반원 주민 폭행. 주민 3명 부상.

1998년

- ▶ 2월7일~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거주중인 집 불법철거로 30여세대 120명 쫓겨남, 주민 20여명 부상 ⇒ 약 25m 높이 철탑망루(골리앗) 투쟁 돌입.
- ▶ 2월12일 - 동대문구 전농 3동 재개발지구  
철거반원+청량리경찰서 천막생활중인 7세대 폭력철거 시도.
- ▶ 3월19일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철거반원 10여명 어린이 기거하는 집에 난입, 어린이 폭행→ 주민 항의 중 철거반원 주민 향해 지프차 돌진으로 주민 2명 중상(척추골절로 전치 4개월 진단).
- ▶ 3월27일~30일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철탑 철거를 위한 폭력행사, 철탑 농성중인 주민에게 식량전달하려던 주민 2명 폭행, 방화. 이범휘(61세)씨 중상, 백석호(28세)씨 중화상.
- ▶ 4월23일(골리앗 고립 28일 째)~24일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경찰병력 1,000여명과 (주)적준 철거반원 300여명, 특수진압대 40여명을 포함, 구청·재개발조합·건설회사 직원 등 약 1천5백여명 동원 행정대집행. 물대포, 최루가스 난사 주민 실신시켜 전원 연행, 골리앗 철거.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통해 행진하던 학생 15명 강제연행, 경희대 학생 무릎 관절 중상. 골리앗 투쟁 주민 30명, 집회 현장에서 56명 등 총 86명의 철거민, 학생 연행.
- ▶ 4월27일 - 용산구 도원동 4 도원 재개발지구  
도원동 주민 용산구청에서 항의 농성 중 도원동 주민 오종춘씨(61, 남) 구청 직원들의

부록 자료로 본 철거

폭행으로 실신, 부인 함순자씨(60, 여) 저항하자 옷을 찢어 실신.

▶ 5월29일 - 서대문구 남가좌동 237 남가좌 7 재개발지구

3차례 폭력 사태, 부녀자 성폭행사건, 5세대 짐 압수로 천막생활.